「보험동향」 2001년 여름호 통권 제18호 2001년 7월 2일 발행 등록 1997년 7월 15일(바-2873)

통권 제18호
2001년 여름호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보험주요지표 동향**
보험산업 총괄
보험 주요지표 분석

◆ **테마진단**
변액보험 도입과 보험사의 운용방향
향후 보험사 지급여력전망과 대응방안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보험사 표준이율 인하
금융기관 업무제휴 현황

◆ **해외보험동향**
FY2000 일본 보험산업 실적 분석
일본 금융심의회, 예정이율 인하 건의
2005년 영국 생명보험산업의 변화 전망
미국 자동차보험 선진시스템 응용사례
OECD 동향 : 제67차 OECD 보험회의 개요

◆ **신착도서안내**

보 험 개 발 원
보 험 연 구 소

목 차

보험 주요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총자산

FY2000 국내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122.5조원, 손해보험이 28.1조원으로 총 150.6조원이며, 전년대비 10.1% 증가함.

□ FY2000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150조 5,88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의 136조 7,661억원보다 10.1% 증가하였음.

- o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122조 5,393억원으로 전년의 110조 2,953억원보다 11.1%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보험료 증가와 보험수지 개선에 따른 결과임.
- o 다만, 투자수익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수입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증가율은 1999년 증가율 19.5%에 미치지 못하였음.
- o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28조 490억원으로 전년의 26조 4,708억원보다 6.0% 증가하였으나 1999년의 증가율 18.0%에 미치지 못하였음.

<표 1> 생/손보사 총자산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 종목	FY1999			FY200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101,692	1,102,953	1,102,953	1,117,441	1,145,055	1,205,091	1,225,393	1,225,393
	14.7	0.1	19.5	1.3	2.5	5.2	1.7	11.1
손해보험	266,541	264,708	264,708	272,004	274,967	290,309	280,490	280,490
	4.3	-0.7	18.0	2.8	1.1	5.6	-3.4	6.0
합계	1,369,233	1,367,661	1,367,661	1,389,445	1,420,022	1,495,400	1,505,883	1,505,883
	8.6	-0.1	19.2	1.6	2.2	5.3	0.7	10.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 및 현대/삼신생명 실적(2000. 12월 실적)이 포함됨.
자료 : 생보 및 손보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나. 수입보험료

FY2000 국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이 52.3조원, 손해보험이 16.9조원으로 총 69.2조원이며, 전년대비 13.0% 증가함.

□ FY2000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여 전체 수입보험료가 69조 1,74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의 61조 5,702억원 보다 13.0% 증가하였음.

- o FY2000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증가는 세제지원에 대한 제도변화와 금융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저축성 및 장기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o FY2000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52조 3,126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으나 4/4분기의 경우 전분기대비 30.7% 감소한 11조 2,867억원을 기록함.
- o FY2000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6조 8,617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으나 4/4분기의 경우 전분기대비 10.8% 감소한 4조 1,511억원을 기록함.

<표 2>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 종목	FY1999			FY200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62,691	112,279	467,554	118,072	129,286	162,902	112,867	523,126
	70.2	-30.1	0.1	5.2	9.5	26.0	-30.7	11.9
손해보험	27,386	37,052	148,148	39,194	41,352	46,561	41,511	168,617
	4.0	-0.9	3.9	5.8	5.5	12.6	-10.8	13.8
합계	200,077	148,904	615,702	156,851	170,152	206,405	154,378	691,743
	52.1	-25.6	1.0	5.3	8.5	21.3	-25.2	13.0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 및 현대/삼신생명 실적(2000. 12월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다.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FY2000년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전년대비 11.4% 증가한 146만 4천원이며, 보험침투도는 전년대비 0.8%p 증가한 13.4%를 기록함.

□ FY2000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인구증가율과 GDP 성장률을 상회하여 전년대비 각각 11.4%와 0.8%p 증가하였음.

□ FY2000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생명보험이 110만 7천원, 손해보험이 35만원 7천원으로 생손보 전체가 146만 4천원에 이르러 FY1999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FY2000 보험침투도는 보험산업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한 13.4%를 기록함으로써 FY1999 대비 0.8%p 증가함.

o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0.4%p 증가한 10.1%를 시현함.
o 손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0.4%p 증가한 3.3%를 시현함.

<표 3>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구분 \ 연도		FY1995	FY1996	FY1997	FY1998	FY1999	FY2000
1인당 보험료 (천원)	생보	783	838	1,065	1,006	998	1,107
	손보	238	290	3447	304	316	357
	계	1,021	1,128	4,512	1,310	1,314	1,464
보험 침투도 (%)	생보	9.4	9.1	10.8	10.4	9.7	10.1
	손보	2.9	3.2	3.5	3.1	2.9	3.3
	계	12.3	12.3	14.3	13.5	12.6	13.4

주 :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 명목GDP임.

라. 금융저축 추이

2000년말 국내 금융저축 잔액은 1,376조원으로 전년의 1,274조원에 비해 8.0% 증가함.

□ 2000년말 국내 금융저축 잔액(부문간 거래는 고려하지 않음)은 1,376조원으로 은행의 비중은 27.3%로서 전년보다 4%p 증가한 반면, 비은행부문은 전년보다 감소한 72.7%로 나타남.

- o 은행의 경우 예금부분보장제도의 도입과 증권시장의 침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은행으로의 수신고가 증가하였음.
- o 보험의 경우에는 2001년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의 확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0.6%p 증가한 8.8%의 비중을 보였음.
- o 유가증권의 비중은 채권비중 증가로 전년보다 5.6%p 증가한 34.6%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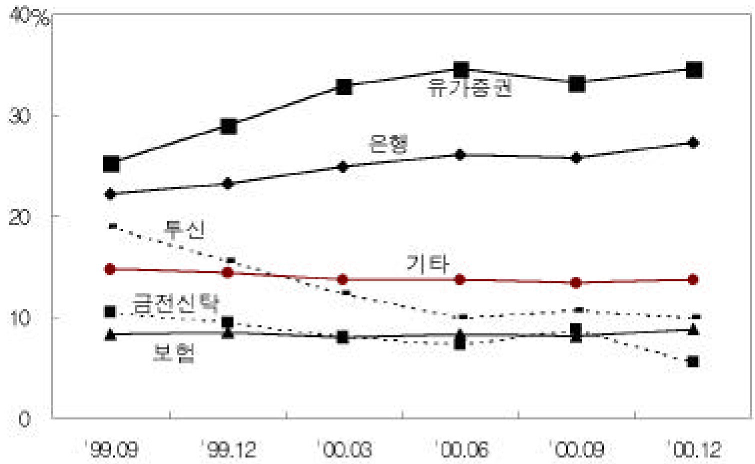
<표 4> 금융저축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 연도	1999		2000			
	3/ 4	4/ 4	1/ 4	2/ 4	3/ 4	4/ 4
은행	22.1	23.3	24.9	26.2	25.7	27.3
보험	8.3	8.4	8.0	8.3	8.2	8.8
금전신탁	10.6	9.4	8.2	7.3	8.8	5.6
투자신탁	8.3	8.4	8.0	8.3	8.2	8.8
유가증권	25.3	28.9	32.8	34.6	33.2	34.6
주식	7.6	11.1	10.5	11.1	10.6	11.2
기타	14.8	14.3	13.8	13.6	13.3	1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부문간 거래는 포함되었으며, 은행은 CD를 포함한 비중임.
2) 기타는 단기금융, 상호금융, 신용금고, 신협, 기타의 합계임.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1년 1/ 4분기 및 2000년 각호.

<그림 1> 금융저축 비중 추이



마. 개인 금융자산 추이

2001년 3월말 현재 총금융자산잔액은 3,687조 5천억원으로 2000년 12월말보다 3.2% 증가하였으며, 개인금융자산은 820조 3,900억원으로 나타남.

□ 2001년 3월말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액은 20조 9천억원으로 전분기의 14조 9천억원에서 40.3% 증가함.

- o 이는 1/4분기 소비지출 증가세 둔화로 금융저축여력이 증대된 데 기인하며, 이에 따라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잔액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820조 3,900억원을 기록함.
- o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에는 전분기대비 1.2% 증가한 145조 6,920원을 기록하여 전체 금융자산 증가율을 하회함.

□ 비은행 금융기관과 유가증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한 반면, 예금은행과 생명보험 및 연금에서의 자산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예금은행의 경우 금리인하로 인하여 금리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단기성 자금이 비은행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져 전분기대비 0.3%p 감소한 30.9%의 비중을 차지함.

o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2001년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의 확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등의 제도적 환경변화로 인한 수입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2%p 감소한 17.8%의 비중을 차지함.

o 유가증권의 경우, 국고채 금리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회사채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채권의 비중은 증대한 반면, 주식의 비중이 감소하여 17.0%의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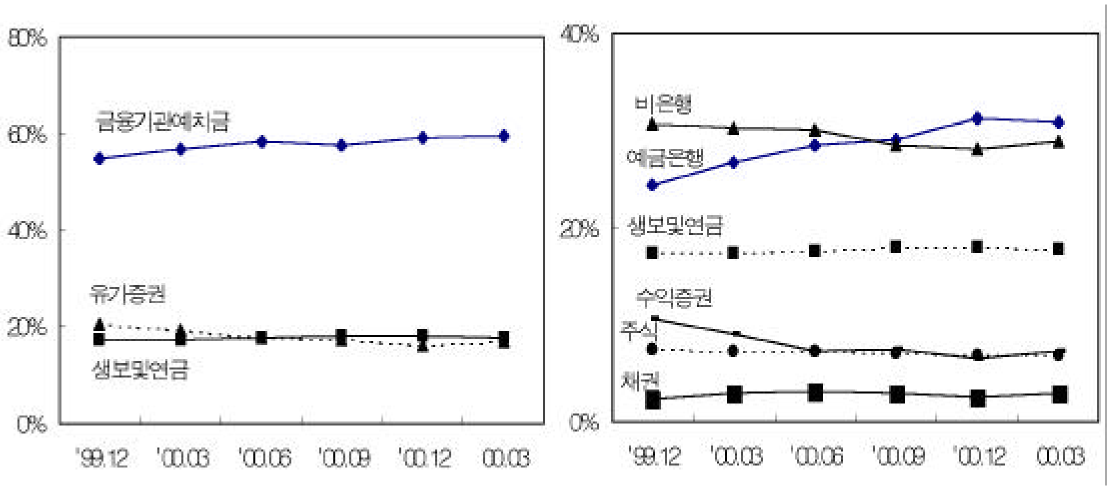
<표 5> 형태별 개인부문 금융자산 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 연도	1999		2000				2001
	3/4	4/4	1/4	2/4	3/4	4/4	1/4
금융기관예치금	54.0	54.9	56.9	58.6	57.7	59.3	59.7
예금은행	22.5	24.3	26.7	28.4	29.2	31.2	30.9
비은행 금융기관	31.5	30.6	30.3	30.1	28.5	28.0	28.8
생보 및 연금	17.0	17.4	17.4	17.5	17.9	18.0	17.8
유가증권	22.0	20.3	19.0	17.6	17.4	16.0	17.0
수익증권	13.0	10.6	8.9	7.3	7.4	6.5	7.2
채권	2.4	2.4	2.9	3.1	2.9	2.6	3.0
주식	6.6	7.3	7.3	7.2	7.1	6.9	6.8
기타	7.0	7.4	6.6	6.3	7.0	6.7	5.6
자금운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타에는 한은예수금, 현금, 출자지분이 포함되었음.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 분기.

<그림 2> 형태별 개인부문 금융자산 비중



2. 보험주요지표 분석[1)]

가.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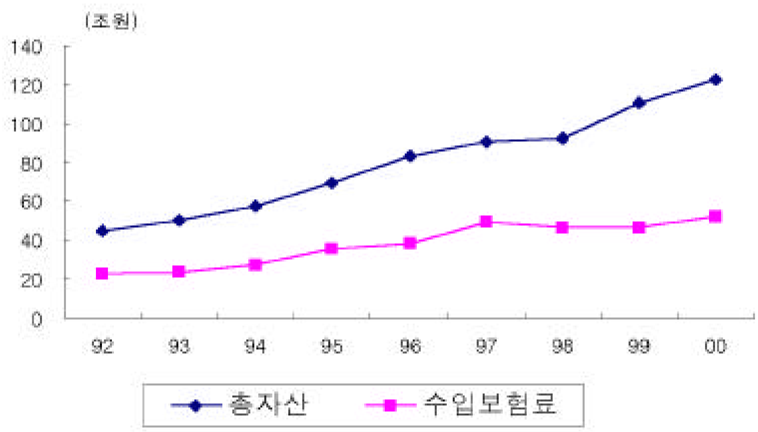
1)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FY2000 생명보험산업은 저축성보험 수요급증으로 IMF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수입보험료 증가세(11.9%)를 시현하였으며, 총자산은 약 122조 규모로 11.1%의 증가세를 시현함.

□ FY2000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를 앞두고 저축성보험 수요급증세가 2000년 12월까지 꾸준히 이어진 결과, 전년동기 대비 11.9% 상승한 52조 3,126억원에 달했음.

o IMF 구제금융 이후 2년 동안 성장세가 정체되었던 생명보험산업은 올해 큰 폭의 성장세로 반전을 경험한 셈임.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연도별 변동추이



1) 금번 호부터 보험 주요지표 분석 본문 내의 통계표를 간략하게 제시함에 따라 분기별 실적을 자세하게 분석한 통계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 총자산은 122조 5,393억원으로 전년의 110조 2,953억원보다 11.1%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보험료 증가와 보험수지 개선에 따른 결과임.

o 다만, 투자수익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훨씬 컸으나 총자산 증가율은 전년동기의 19.5%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음.

<표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자 산	1,101,692	1,102,953	1,102,953	1,117,441	1,145,055	1,205,091	1,225,393	1,225,393
	14.7	0.1	19.5	1.3	2.5	5.2	1.7	11.1
수입보험료	162,691	112,279	467,554	118,072	129,286	162,902	112,867	523,126
	70.2	-31.0	0.1	5.2	9.5	26.0	-30.7	11.9

주 : 1)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의 비율은 증감률로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대비임.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및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5년→7년) 등의 제도변화를 앞두고 저축성 보험으로 자금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타 금융자산의 투자수익률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인해 우량생보사 저축성상품 선호가 높아진데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o 그러나, FY2001에는 생명보험의 세제혜택이 다소 감소하고, FY2000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특별히 급증했던 영향으로 전년도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o 이미 2001년에 속하는 FY2000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30.7%의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나타났고, FY2001 1/4분기에도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

료 상승효과가 발생하여 보험수요의 충분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보험종목별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고액자금의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사혼합보험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을 주도하였음.

- o 일시납 고액계약이 몰린 생사혼합보험의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1.3%에 달했으며, 생존보험도 전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12.2%의 성장을 시현하였음.
- o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는 사망보험의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6.7%로 전년에 이어 지속적이고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구 분		FY1999			FY200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24,772	26,305	97,808	32,346	27,494	27,717	22,154	109,711
	비중	15.2	23.4	20.9	27.4	21.3	17.0	19.6	21.0
사망	보험료	25,965	27,610	100,461	28,809	29,936	33,271	35,284	127,246
	비중	16.0	24.6	21.5	24.4	23.2	20.4	31.3	24.3
생사혼합	보험료	29,921	32,495	117,813	33,598	36,473	58,470	37,872	166,413
	비중	18.4	28.9	25.2	28.5	28.2	35.9	33.6	31.8
개인계	보험료	80,658	86,410	316,082	94,752	93,904	119,404	95,311	403,371
	비중	49.6	77.0	67.6	80.2	72.6	78.3	84.4	77.1
단체	보험료	82,033	25,869	151,472	23,320	35,382	43,498	17,556	119,755
	비중	50.4	23.0	32.4	19.8	27.4	26.7	15.6	22.9
합계	보험료	162,691	112,279	467,554	118,072	129,286	162,902	112,867	523,12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비중은 전체 수입보험료 중 각 보험종목의 비중임.
2) FY'99년부터 단체보험은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임.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o 전년도에 종퇴보험의 퇴직보험전환에 따른 전환수입보험료의 이중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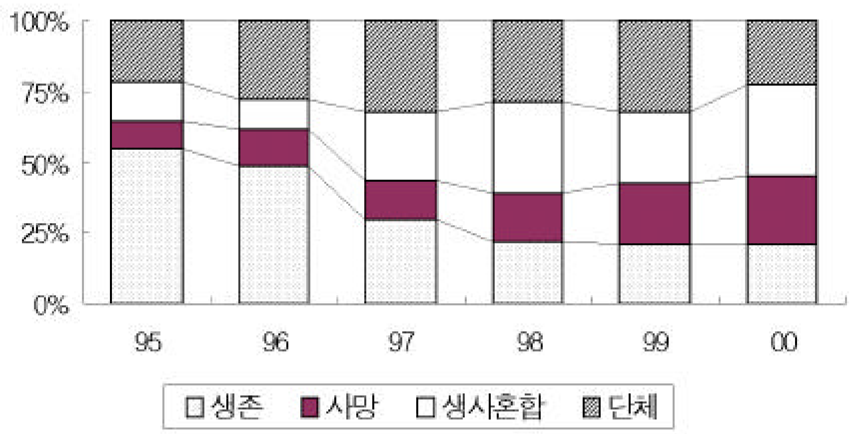
으로 수입보험료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났던 단체보험의 경우 은행 등 타금융기관의 퇴직보험 시장 잠식의 영향이 겹치면서 수입보험료 거수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종목별 구성비는 생사혼합보험이 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망보험 24.3%, 단체보험 22.9%, 생존보험 21.0%의 순서임.

o 단체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9.5%p 하락한 반면, 생사혼합보험이 6.6%p 증가하였음.

o 2001년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FY2000 4/4분기 구성비를 보면, 사망보험은 다른 종목과 달리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한 결과 구성비가 31.3%로 크게 증가하였고, 생사혼합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구성비 측면에서는 33.5%로 핵심 종목의 위치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0 생명보험산업은 시장구조측면에서 볼 때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우량사 선호와 인수·합병의 흐름으로 시장집중도가 더욱 높아진 한해로 평가됨.

o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0%**에서** 79.9%**로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도** 36.3%**에서** 40.6%**로 높아졌음**.

o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인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사로 인해 상위** 9**사의 시장점유율이** FY1999**의** 88.8%**에서** 91.2%**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 4**분기에는** 95.0%**에까지 이르렀음**.

o **우량외국사의 인지도와 영업력 신장의 결과 외국사**(**알리안츠제일 포함**)**의 점유율도 전년도** 5.1%**에서** 5.7%**로 올라 몇 년간 이어온 증가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수입의 감소세가 전체적으로 두드러진** FY2000 4/ 4**분기에는 외국사 점유율이** 6.9%**까지 상승하였음**.

<표 3>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1999			FY2000				
	3/ 4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상위 1개사	32.5	39.4	36.3	43.5	39.7	38.1	41.4	40.6
상위 3개사	71.3	78.1	75.0	80.3	79.0	79.7	78.9	79.9
상위 9개사	88.7	90.3	88.8	92.2	93.7	94.0	95.0	91.2
외 국 사	3.6	5.1	4.6	5.1	5.2	5.5	6.9	5.7
국내중소형사	25.1	16.8	20.4	14.6	15.8	14.8	14.2	14.4
허핀달지수	0.1914	0.2348	0.2134	0.2604	0.2399	0.2411	0.2467	0.2471

주 : 1)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하였음.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됨.
3) 허핀달지수는 각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4)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하였으되, ING의 경우 국내지분이 있지만 외국사로 간주하였음. 2001년 3월말 현재 알리안츠제일, 푸르덴셜, ING, 라이나, AIG, 메트라이프, 프랑스, 뉴욕생명 등 8사가 외국사로 분류되었음.
5) 국내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사로 함.

자료 :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2) 수지상황

FY2000 生命保險産業의 당기순손실은 6천 9백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 누적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자의 주요원인은 투자수익 감소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이차손발생인 것으로 분석됨.

□ FY2000 생명보험산업의 지급보험금은 40조 4,30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상승하였으며, 이는 수입보험료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에 17.0%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분석됨.

o 해약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다소 증가한 것은 3년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한 고금리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만기환급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비는 신계약비 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한 7조 2,39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표 4>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지급보험금	122,346	89,479	383,049	104,940	81,671	127,134	90,562	404,307
	45.6	-26.9	-17.0	17.3	-22.2	55.7	-28.8	5.5
사 업 비	15,988	18,170	62,369	13,777	16,981	21,421	20,215	72,394
	5.9	13.6	-5.5	-24.2	23.3	26.1	-5.6	16.1

주 : 1) 특별계정 실적을 포함함.
2) 하단의 비율은 증감률로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대비임.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0 **생명보험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6,933**억원에 이르렀음**.

- o **투자손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서 알 수 있듯이 예정이율을 하회하는 투자수익률로 인한 이차손 증가가 대규모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o **다만**, **퇴출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사차익**, **비차익의 증대 등으로 인해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o **투자수익률 악화로 이차손이 확대된 결과 흑자를 기록한 보험사의 숫자가 전년도의** 12**개사에서** 9**개사로 줄어들었음**.

<표 5> **생명보험 총수익 및 총비용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FY1998	FY1999	FY2000
보험영업 손익	수익	465,717	419,427	484,695
	비용	507,706	427,358	450,552
	손익	-41,989	-7,932	34,144
투자영업 손익	수익	100,462	106,073	84,204
	비용	65,439	45,874	38,546
	손익	35,023	60,199	45,658
준비금전입		25,844	50,938	81,188
기타손익		-6,859	-9,492	-5,318
법 인 세		543	1,646	228
당기순이익		-40,212	-9,808	-6,933

주 :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생명보험사, 월말보고서.

3) 자산운용

FY2000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은 유가증권이 42.7%, 대출채권 34.0%, 부동산 8.4%로 나타났고, 주가 및 금리하락으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수익률 하락이 전반적인 투자수익률 하락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식의 구성비 하락과 수익률 하락이 두드러졌음.

□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일반계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이 42.7%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출채권 34.0%, 부동산 8.4%의 순서로 나타났음.

□ FY2000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주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주식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채권투자의 비중을 증대시킨 점으로 분석됨.

o 주식의 비중은 5.0%로 전년의 8.5%에서 3.5%p 하락하였고, 수익증권도 14.4%에서 9.4%로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채권투자비중이 상당폭 증가하여 28.2%로 전년의 19.6%을 크게 상회하였음.

o 대출채권의 경우 전체적인 구성비는 전년과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으나 생보사들이 우량 개인대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개인대출 구성비(일반계정 자산 대비)가 전년동기 대비 2.8%p 증가한 20.2%를 기록한 반면, 기업대출은 절대금액 및 비중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 1999년 4월 도입된 퇴직보험을 운용하는 특별계정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총자산 대비 6.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별 투자수익률은 가장 구성비가 높은 유가증권의 경우 8.6%로 전년대비 9.1%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대출채권과 부동산은 전년동기 대비 약간 상승한 11.5%, 3.6%로 나타남.

o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약간 상승한 것은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개인대출을 늘린 때문으로 분석됨.

□ 유가증권 수익률의 하락이 전체 투자수익률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

되며, 특히 주식투자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o 투자유가증권에 속한 주식투자 수익률의 경우 전년동기 31.9%에서 5.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FY2000 생명보험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및 수익률

(단위 : %)

구 분	FY1999		FY2000	
	자산구성	수익률	자산구성	수익률
현·예금 및 예치금	4.9	5.7	3.3	7.1
유 가 증 권	42.6	17.7	42.7	8.6
ㅇ 상품유가증권	14.9	30.1	9.6	8.7
- 주 식	1.9	141.9	0.6	22.4
- 채권 등	1.5	11.2	3.1	12.6
- 수익증권	11.5	15.5	5.8	4.9
ㅇ 투자유가증권	27.7	13.0	33.2	8.6
- 주 식	6.6	31.9	4.4	5.2
- 채권 등	18.1	11.2	25.1	10.6
- 수익증권	2.9	5.2	3.6	1.7
대 출 채 권	33.5	11.0	34.0	11.5
부 동 산	9.1	2.2	8.4	3.6
운 용 자 산 계	90.1	12.7	88.5	9.1
비 운 용 자 산	9.9	0.5	11.5	1.1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5.7)	11.1	100.0 (93.1)	8.2
특 별 계 정 자산	4.3	-	6.9	-
총 자 산	100.0	-	100.0	-

주 : 1)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자산별 투자수익률은 각사 월말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반계정 투자수익률 계산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음.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4) 경영효율

FY2000 생명보험산업의 경영효율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해약률, 생산성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실적을 보였으나, 투자수익률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었음.

□ 생명보험회사들의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가 수입보험료 증가보다 낮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6%p 하락한 77.3%를 기록함.

o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던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급속한 증가와 효력상실해약률의 개선에 힘입어 안정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사업비율은 13.8%로 전년동기(13.3%)와 비슷한 수준이며, 생명보험회사들은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것으로 분석됨.

o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과로, 개인보험 전 종목에서 사업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존보험 1.3%p, 사망보험 2.6%p, 생사혼합보험 0.3%p의 하락을 시현하였음.

<표 7> 생명보험회사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1999			FY200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지급률	75.2	79.7	81.9	88.9	63.2	78.0	80.2	77.3
사업비율	9.8	16.2	13.3	11.7	13.1	13.1	17.9	13.8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o 사업비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사업비율이 낮은 단체보험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았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FY2000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효율 지표를 살펴보면, 해약률과 생산성 측면에서 개선추세가 뚜렷한 반면, 주식시장 침체 및 금리하락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고통받아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o 해약률은 16.0%로 전년대비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유지율도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여 13회차 유지율이 전년대비 7.5%p 향상되었음.

o 모집인정착률의 경우 정착률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이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임.

o 투자수익률은 일반계정기준 자산을 기준으로 2.9%p 감소한 8.2%를 기록하였으며, 투자비용을 감안할 경우 4%대의 투자수익률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표 8> FY2000 생명보험회사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구 분		FY1998	FY1999	FY2000
해약률		29.4	20.5	16.0
자산운용률		88.3	90.1	88.5
투자수익률	운용자산	12.6	12.7	9.1
	총자산	11.6	11.1	8.2
계약유지율		54.0	63.9	71.4
모집인정착률		18.6	22.7	22.4

주 : 1) 해약률은 일반계정기준으로 FY2000의 경우 회계연도말 통계에서 현대 및 삼신생명을 제외하고 계산한 실적이며, 자산운용률 및 투자수익률은 일반계정기준이되, 삼신 및 현대생명을 포함한 실적임.
2) 계약유지율은 13회차, 모집인정착률을 13월차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보험회사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5) 판매채널

> **모집인 중심의 판매채널 구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영효율화 노력에 따라 모집인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FY2000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을 분석한 결과 募集人에 의한 판매형태가 62.9%로 나타났고, 회사직급에 의한 판매는 전체의 34.2% 수준으로 조사되었음[1].

o 모집인 판매비중이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는 개인보험 분야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직급 판매비중이 높은 단체보험의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9>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회사직급	39.3	28.1	37.1	34.6	36.8	34.2
모 집 인	58.7	69.2	60.0	61.7	61.7	62.9
대 리 점	2.0	2.7	2.9	3.6	1.5	2.9
기 타	0.0	0.0	0.0	0.0	0.1	0.0
합 계	100.0 119,416	100.0 39,840	100.0 45,461	100.0 75,197	100.0 28,950	100.0 189,447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월말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FY1999의 경우 특별계정을 제외하고, FY2000은 특별계정을 포함함).

□ 각 보험회사의 꾸준한 구조조정으로 모집인수, 임직원수, 대리점수가 모두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성도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1) 직급 판매비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종퇴보험이 2000년 10월부터 판매중지됨에 따라 시계열 추세상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계정을 포함하였음. 다만, 자료상의 문제로 FY'99 실적은 일반계정통계로 표시함.

있음.

o 모집인수는 전년대비 3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감소하였고, 임직원수도 3천여명 가까이 감축되었음.

o 인원감축과 경영효율화의 결과 모집인 및 대리점의 생산성도 크게 개선되어 모집인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가 FY1999 대비 5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판매채널 규모 및 생산성

(단위: 명, 개, 천원)

구 분	FY1999		FY2000			
	3/ 4	4/ 4	1/ 4	2/ 4	3/ 4	4/ 4
모집인수	242,934	241,429	219,138	217,408	217,390	213,546
대리점수	8,010	7,789	6,904	6,690	6,407	6,245
임직원수	36,604	35,663	34,030	33,612	33,118	32,966
모집인생산성 (대리점생산성)	-	10,497 (10,294)	-	13,240 (12,338)	-	16,413 (20,169)

주 : 1)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으며,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이 포함됨.
2) 모집인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frac{\text{누적 모집인[대리점] 수입보험료}}{\text{(기초모집인[대리점]수+기말모집인[대리점]수)/ 2}} \div \text{누적월수}$$

자료 :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김혜성 책임연구원)

나. 손해보험

1)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FY2000 손해보험 原受保險料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FY1999 대비 13.8% 증가한 16조 8,61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총자산 규모는 28조 490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原受保險料 규모는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큰 폭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3.8% 증가한 16조 8,617억원을 기록함.

o 자동차보험(17.4%), 특종보험(16.6%), 장기보험(15.1%)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해상보험(-5.0%), 해외원보험(-34.5%)의 경우 보험료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총 자 산	264,708	264,708	272,004	274,967	290,309	280,490	280,490
	-0.7	18.0	2.8	1.1	5.6	-3.4	6.0
원수보험료	37,052	148,148	39,194	41,352	46,561	41,511	168,617
	-0.9	3.9	5.8	5.5	12.6	-10.8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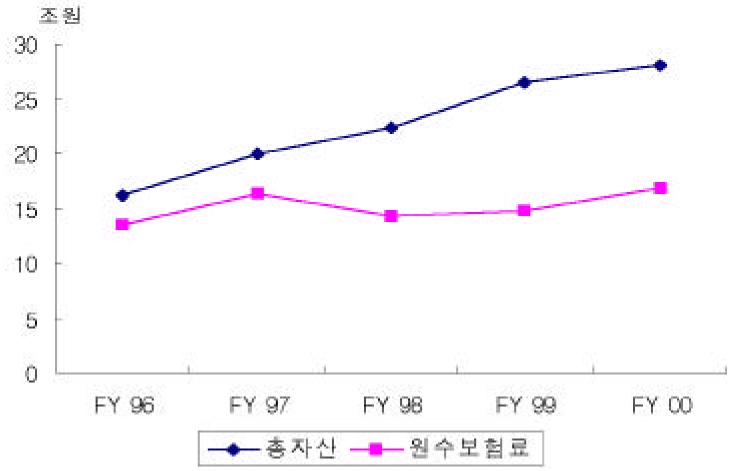
주 : 1) 총자산은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이며 원수보험료는 분기당 순증분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이 포함된 수치임.
3)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월말보고서』, 각 월별.

□ FY2000 손해보험회사의 總資産은 28조 490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수익의 저하로 FY1999에 비해 낮

은 성장률을 시현함.

<그림 3>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연도별 추이



□ FY2000 손해보험 사업의 原受保險料는 전년대비 13.8% 성장하였으나 분기대비로는 10.8% 하락한 모습을 보임.

o 이는 지난 분기 장기보험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으로 보여짐.

□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5%, 44.9%로 전년대비 1.1%p, 0.2%p씩 증가하였음.

□ FY2000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조 4,983억원으로 FY1999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1999년부터 판매개시된 플러스 자동차보험과 2000년 8월부터 판매된 고급형 자동차보험의 판매호조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

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보험료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581	2,646	662	662	795	636	2,755
	성장률	-23.4	-3.3	13.9	-	20.1	-20.0	4.1
	비 중	1.6	1.8	1.7	1.6	1.7	1.5	1.6
해 상	보험료	1,087	4,571	1,081	1,065	1,065	1,133	4,344
	성장률	-1.5	22.3	-0.6	-1.5	-	6.4	-5.0
	비 중	2.9	3.1	2.8	2.6	2.3	2.7	2.6
자동차	보험료	14,065	55,368	14,889	16,647	17,171	16,276	64,983
	성장률	-5.4	4.9	5.9	11.8	3.1	-5.2	17.4
	비 중	38.0	37.4	38.0	40.3	36.9	39.2	38.5
보 증	보험료	1,535	5,738	1,611	1,324	1,551	1,535	6,021
	성장률	1.3	-6.1	5.0	-17.8	17.1	-1.0	4.9
	비 중	4.1	3.9	4.1	3.2	3.3	3.7	3.6
특 종	보험료	2,145	9,179	2,864	2,801	2,688	2,349	10,702
	성장률	-9.0	1.4	33.5	-2.2	-4.0	-12.6	16.6
	비 중	5.8	6.2	7.3	6.8	5.8	5.7	6.3
해외원 보 험	보험료	163	673	152	177	52	60	441
	성장률	8.7	-21.7	-6.7	16.4	-70.6	15.4	-34.5
	비 중	0.4	0.5	0.4	0.4	0.1	0.1	0.3
장 기	보험료	15,559	60,307	16,027	16,676	19,447	17,242	69,392
	성장률	2.7	-0.2	3.0	4.0	16.6	-11.3	15.1
	비 중	42.0	40.7	40.9	40.3	41.8	41.5	41.2
개 인 연 금	보험료	1,488	6,041	1,492	1,515	1,544	1,606	6,157
	성장률	-0.7	-11.1	0.3	1.5	1.9	4.0	1.9
	비 중	4.0	4.1	3.8	3.7	3.3	3.9	3.7
퇴 직 보 험	보험료	429	3,625	416	485	2,248	674	3,823
	성장률	-81.0	-	-3.0	16.6	363.5	-70.0	5.5
	비 중	1.2	2.4	1.1	1.2	4.8	1.6	2.3
계	보험료	37,052	148,148	39,194	41,352	46,561	41,511	168,617
	성장률	-0.9	3.9	5.8	5.5	12.6	-10.8	13.8

주 : 성장률은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별.

□ FY2000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6조 9,392**억원 및** 6,15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5.1%, 1.9%**의 증가를 보였음**.

o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증가에 따라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2%로 전년대비 0.5%p 증가한 반면, 개인연금보험의 비중은 0.4%p 감소한 3.7%로 나타났음.

o 장기손해보험 실적의 큰 폭 증가는 2000년 3월 배당제도 도입으로 각사에서 신규 개발한 상품이 전년도의 108개에서 199개로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민간의료보험을 필두로 건강보험의 개발·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기인함.

□ FY2000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6,021억원을 시현하였음.

o 원수보험료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의 市場占有率은 전년대비 0.3%p 감소한 3.6%로 나타났음.

o 할부판매보증 및 사채보증보험 등에서 판매부진이 지속된 반면, 이행보증과 소액대출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음.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5.0% 감소한 4,34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2.6%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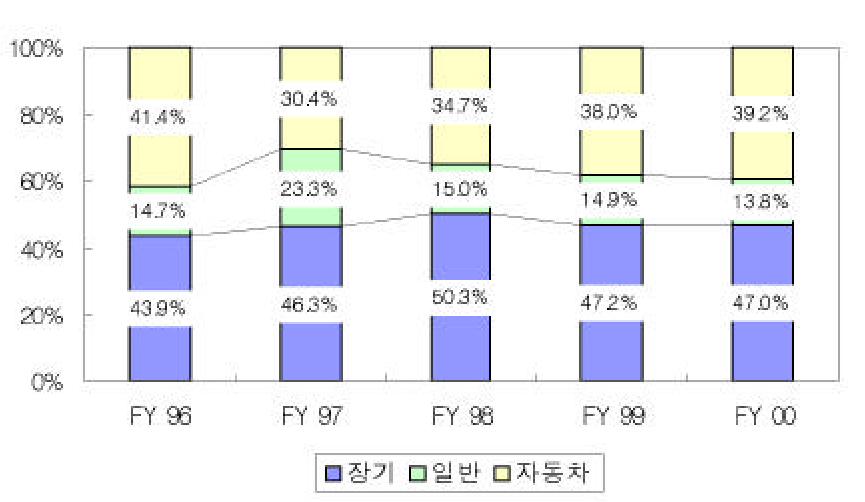
o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 감소는 적하보험의 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공보험에서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화재 및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2,755억원 및 1조 702억원으로 화재보험은 전년대비 4.1%, 특종보험은 전년대비 16.6%의 성장률을 기록함.

o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는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기술보험에서

성장률이 부진했던 반면, 일반배상 및 가스배상책임보험, 여행상해보험, 종합보험에서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확대된 것에 기인함.

<그림 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추이



주 : 1.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2.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그룹별 점유비 추이를 살펴볼 때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중·소형사의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FY2000 상위5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2.3%p 증가한 75.7%를 기록하고 있으며, 분기대비로는 0.5%p 감소한 모습을 보여 과점화 현상이 다소 개선되어 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o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소비자들이 회사 인지도 및 재무건전성이 높은 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FY1999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0.1469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1999		FY2000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점유비	상위1개사	26.2	26.0	26.2	28.3	29.8	27.7	28.1
	상위3개사	53.7	53.2	53.8	55.5	56.9	55.7	55.5
	상위5개사	73.9	73.4	74.4	75.7	76.6	76.1	75.7
	일반사 계	95.4	95.6	95.5	96.5	96.1	95.7	95.9
	전 업 사	4.2	4.0	4.2	3.2	3.5	3.8	3.7
	외 국 사	0.4	0.4	0.4	0.3	0.4	0.5	0.4
허 핀 달 지 수		0.1383	0.1367	0.1391	0.1475	0.1550	0.1463	0.1469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월호.

2) 수지상황

FY2000 손해보험사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는 전년대비 각각 31.9%, 5.8% 증가하였으며, 보험영업이익은 보증사의 실적개선으로 1조 2,174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여 FY1999대비 수지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FY2000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은 31.9%의 증가율을 보여 원수보험료 증가율보다 18.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Y2000 손해보험회사는 총 3조 7,805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나 전년대비 5.8% 증가세를 보임.

o 이 중 51.5%가 자동차보험, 35.4%가 장기손해보험, 나머지가 기타 일반 손해보험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손해보험사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발생손해액	15,669	93,297	25,653	30,060	35,753	31,561	123,027
	-43.4	44.0	63.7	17.2	18.9	-11.7	31.9
사 업 비	8,981	35,720	8,942	9,739	9,735	9,389	37,805
	-3.4	5.3	-0.4	8.9	0.0	-3.6	5.8

주 :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FY2000 손해보험회사의 총수익을 살펴볼 때 전년도에 비해 보험영업수익 비중이 5.9%p 오른 87.8%를 차지하고 있어 생명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FY2000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수지는 8,735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음.

o 이는 보험금 지급, 사업비 등의 지출요인이 보험료 수입 등의 수입요인보다 항상 많아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o 또한, 장기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적자 증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FY2000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8,16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FY1999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증권시장의 침체에 따른 자산운용수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에서의 적자폭이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함.

o 보험영업에서의 적자폭 감소는 보증보험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보증사의 보험영업이익이 급증하였기 때문임(FY1999 대비 3조 5천억원 개선).

o 원수 내국사의 경우에는 보험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00억원 개선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이 급감하여 5,5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표 15> 손해보험 총수익 및 총비용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FY1999			FY2000			
		2/4	3/4	4/4	1/4	2/4	3/4	4/4
총수익	보험영업	67,947	102,808	137,645	35,648	72,429	112,381	150,127
	자산운용	14,419	20,338	25,187	4,625	8,726	13,012	17,456
	기 타	2,736	4,444	5,300	539	1,143	2,108	3,460
	계	85,102	127,590	168,132	40,812	82,298	127,501	171,043
총비용	보험영업	95,937	147,489	186,480	34,947	75,086	120,878	162,301
	자산운용	2,601	4,076	8,777	2,900	6,364	8,727	9,630
	기 타	2,957	3,838	6,187	603	2,330	3,617	7,847
	계	101,495	155,403	201,444	38,450	83,780	133,222	179,778
수지차	보험영업	-27,990	-44,681	-48,835	701	-2,657	-8,497	-12,174
	자산운용	11,818	16,262	16,410	1,725	2,362	4,285	7,826
	기 타	-221	606	-887	-64	-1,187	-1,509	-4,387
	계	-16,393	-27,813	-33,312	2,362	-1,482	-5,721	-8,735
법 인 세		1,905	1,942	1,164	26	2,336	-1,551	-568
당기순이익		-18,299	-29,764	-34,476	-632	-852	-4,169	-8,166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3) 자산운용

FY2000 국내 손보사의 總資産 규모는 28조 490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46.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Y2000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28조 490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함. 반면 FY2000 4/4분기 실적만으로 보면 전분기에 비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o FY2000 중 외국사의 자산증가율이 16.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증사가 14.3%, 대형사가 7.4%의 증가를 보인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2.2%의 감소를 보임[2]).

□ FY2000 손보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46.1%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 13.9%, 부동산 10.4%, 현·예금 10.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o 대형사의 경우 유가증권의 비중이 총자산의 51.9%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36.4%에 불과함. 또한 대형사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중소형사의 경우 현·예금 및 부동산, 외국사의 경우 현·예금 및 상품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o 외국사의 경우 대출채권 및 부동산의 비중이 낮은 반면 현·예금 및 상품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사보다 유동성에 비중

2) 대형사는 원수보험료기준 상위4사(삼성, 현대, 동부, LG), 중소형사는 대형사를 제외한 국내 원수7사, 외국사는 AIG, ACE, FEDERAL, ROYAL임.

을 둔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Y2000 국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률(運用資産/ 總資産)은 80.7%로 전년대비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운용자산의 비중이 생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구 분	FY1999		FY2000			
	3/ 4	4/ 4	1/ 4	2/ 4	3/ 4	4/ 4
현금과예금	12.0	11.1	11.5	11.7	10.3	10.2
유가증권	47.7	45.7	45.7	46.1	47.0	46.1
ㅇ 상품유가증권	34.6	30.2	28.7	32.2	31.9	29.1
- 주 식	4.7	3.1	3.3	2.5	1.8	1.9
- 채권등	17.5	17.0	17.4	19.8	21.3	19.7
- 수익증권	12.6	9.9	8.0	9.9	8.9	7.6
ㅇ 투자유가증권	13.0	15.5	17.0	13.8	15.1	17.0
- 주 식	4.9	5.2	5.3	3.8	5.0	4.5
- 채권등	7.7	9.9	11.3	9.1	9.2	11.4
- 수익증권	0.4	0.4	0.4	1.0	0.9	1.1
대출채권	13.5	13.9	13.7	13.6	12.9	13.9
부동산	9.6	9.8	9.8	10.1	9.9	10.4
운용자산계	82.7	80.5	80.7	81.5	80.2	80.7
비운용자산	17.3	19.5	19.4	18.5	19.9	19.3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8.8)	100.0 (98.7)	100.0 (98.6)	100.0 (98.5)	100.0 (97.9)	100.0 (97.8)
특별계정자산	1.2	1.3	1.4	1.5	2.1	2.2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4) 경영효율

FY2000 국내 손보사의 합산비율은 106.9%로 전년대비 28.6%p 감소한 반면, 총자산수익률은 6.6%로 전년대비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0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28.6%p 감소한 106.9%를 기록하여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o 이는 지난해 456.0%를 기록한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FY2000 들어 급속히 호전된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o 화재, 해외원보험, 개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합산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1/ 4	2/ 4	3/ 4	4/ 4
경과손해율	114.7	116.7	109.1	71.9	76.9	82.3	82.0
사업비율	26.5	26.5	26.4	24.8	25.2	24.6	24.9
합산비율	141.2	143.2	135.5	96.7	102.1	106.9	106.9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월말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 해외원보험, 개인연금의 손해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화재, 해상, 특종 등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은 40 7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 손보사 수지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단위: %)

구 분	FY1999			FY2000			
	2/4	3/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44.9	48.4	61.9	60.0	70.5	74.1	67.1
해상보험	36.3	40.9	43.8	52.0	44.4	47.8	46.5
자동차보험	68.8	71.5	73.0	69.5	71.1	74.3	73.2
보증보험	523.9	535.1	456.0	-78.3	-9.1	65.0	73.9
특종보험	58.9	55.3	56.9	51.4	52.4	55.3	56.8
해외원보험	45.1	52.0	63.6	55.1	57.3	80.4	78.9
장기보험	92.1	92.3	92.6	91.2	91.2	91.3	90.9
개인연금	111.1	112.8	113.6	116.1	118.4	119.0	118.6
전 체	114.7	116.7	109.1	71.9	76.9	82.3	82.0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FY2000 국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률(運用資産/總資産)은 80.7%로 전년대비 0.2%p 증가, 전분기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FY2000 손보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6.6%로 전년대비 4.3%p 감소함.

o 이는 FY1999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높은 손보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년의 주식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 기인함.

<표 19> 손보사 자산운용률 및 총자산수익률 추이

(단위: %)

구 분	FY1999			FY2000			
	2/4	3/4	4/4	1/4	2/4	3/4	4/4
자산운용률	82.3	82.7	80.5	80.7	81.5	80.2	80.7
총자산수익률	12.4	11.5	10.9	7.0	6.6	6.4	6.6

주 :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5) 판매채널

FY2000 회계연도는 전년도에 비해 회사직급과 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중이 감소한 반면, 모집인을 통한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FY2000 모집형태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퇴직보험을 제외한 원수보험료 16조 4,784억원 중 회사직급의 비중이 7.4%, 모집인 47.7%, 대리점 43.8%, 공동인수 1.0%로 각각 나타났음.

o 모집인과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역전되어 모집인에 의한 판매비중이 3.9%p 높게 나타났음.

□ 회사직급에 의한 판매비중은 전년대비 1.6%p 감소한 7.4%를 기록하였음.

<표 20> 손보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1/ 4	2/ 4	3/ 4	4/ 4
회사직급	6,836	10,157	13,044	3,552	6,973	9,963	12,273
	9.7	9.4	9.0	9.2	8.8	8.0	7.4
모 집 인	32,608	49,707	66,583	17,274	35,625	55,021	78,613
	46.2	46.1	46.1	44.5	44.7	44.4	47.7
대 리 점	30,821	47,639	64,299	17,639	36,342	57,819	72,206
	43.7	44.2	44.5	45.5	45.6	46.6	43.8
공동인수	248	397	598	314	706	1,156	1,693
	0.4	0.4	0.4	0.8	0.9	0.9	1.0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 각 월호.

□ FY2000 국내 손보사들의 모집인당 원수보험료는 1억 1,41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0% 증가하여 모집인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생산성 증가추세는 모집인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대리점당 원수보험료는 대리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 및 자동차 보험의 판매호조로 전년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손보사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1/ 4	2/ 4	3/ 4	4/ 4
임 직 원	27.2	41.0	53.2	14.8	29.4	42.2	53.1
	-	-	-7.9	11.0	8.2	3.0	-0.2
모 집 인	36.7	57.2	79.8	21.5	46.1	75.3	114.1
	-	-	5.3	17.5	25.4	31.6	43.0
대 리 점	59.9	90.8	122.6	33.3	70.8	113.1	135.4
	-	-	3.3	12.6	18.2	24.5	10.4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거수보험료/ 임직원수.
4. 모집인당 원수보험료 = 모집인 거수보험료/ 모집인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거수보험료/ 대리점수.

(지재원 연구원)

테마진단

1. 변액보험 도입과 보험사의 운용방향*

가. 머리말

□ 지난 수년간 생보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 2001년 7월부터 생명보험시장에 선보일 예정으로 있음.

o 실적배당형상품으로 타금융권과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도입하기로 함.

□ 최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환경은 금리의 하향안정화, 자산운용수익률 악화에 따른 금리역마진 발생, 소비자들의 투자수익률 선호의식의 고조 등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o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전받고자 하는 잠재적인 니드가 발생하고 있으며,

o 회사는 보험상품의 장기적 특성에 따라 금리의 하향 추세에 있는 금융환경에서 이자율 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요구하게 되었음.

o 이와 같이 소비자와 회사의 니드의 합치와 더불어 행정당국의 최근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부합되어 단계적인 변액보험 상품

---

* 본 고는 보험1본부 생명보험팀 노병윤 팀장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견해임을 밝힘.

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에서 변액보험은 195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진행으로 인한 생명보험급부의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o 소비자의 실세금리 선호경향에 부응하고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인하여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취급하고 있음.

o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Variable Life Insurance, 영국은 Unit Linked Insurance, 독일은 Fund Link Insurance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o 주요 국가들의 경우 변액보험의 운영형태는 변액생명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 이미 변액보험이 도입된 미국 및 일본의 변액보험 판매현황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반면 일본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o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이 전통적 종신보험을 추월하는 등 성공적인 판매가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음.

-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활황과 금리의 하락
- Mutual Fund의 대중화에 따른 실적배당형보험의 인지도 개선
- 상품의 뛰어난 Flexibility 및 다양한 투자 Option
- 세금이연 및 절세효과

<표 1> 미국의 변액보험 판매비중(개인보험 초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85	‘88	‘91	‘93	‘95	‘97	‘99
VL + VUL	4	8	8	17	18	28	33
종신보험	47	53	57	48	44	35	23

자료 :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2000.

o 일본의 경우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실패요인은 다음과 같음.

-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주식시장 폭락
- 특별계정 Fund 운영 미숙(단일 Fund 운영)
- 부실판매에 따른 Fund에 대한 국민인식 저하
- 상품의 경직성

<표 2> 일본의 변액보험 판매비중

(단위: %)

구 분	'87	'89	'91	'93	'95	'97	'99
가입건수	3.5	2.2	0.6	0.3	0.2	0.3	0.3
가입금액	4.1	2.5	0.6	0.3	0.2	0.3	0.4

자료 : 일본생명보험문화센터, 『생명보험 Fact Book』, 각 연호.

□ 이에 본고에서는 변액보험의 도입에 앞서 변액보험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판매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운용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

나. 변액보험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 변액보험의 특징

□ 투자실적에 대한 계약자 책임원칙 중시

o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적립보험료로 Fund를 구성하며 이를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므로, 회사는 투자상의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반면 계약자는 투자결과를 수용해야 함.

o 투자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하고 초과수익 또한 전부 계약자에게 환원되는 등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보험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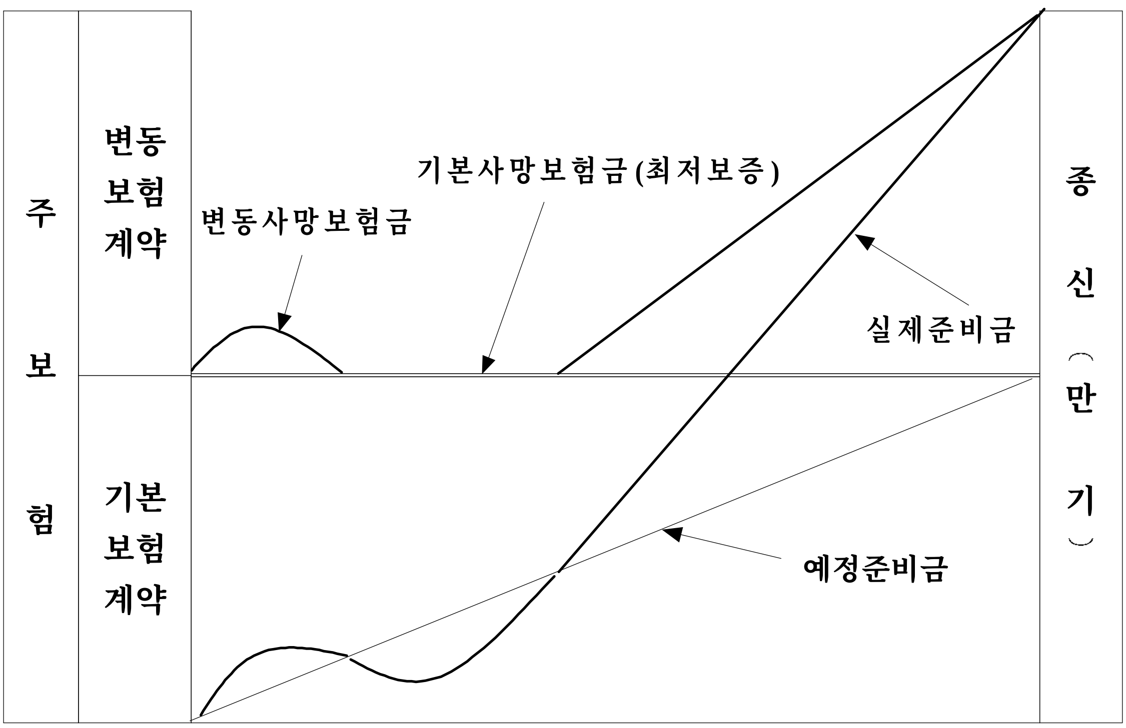
□ 일반보험과는 완전히 분리된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o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그 중 단기자금(당해기간의 위험보험료)과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잔류하고 장기자금(적립보험료)만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용됨.

□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o 계약체결시 정한 사망보험금(기본보험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한 경우에는 증감한 이후의 사망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증됨.

□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주 : 1. 기본사망보험금 : 계약체결시 정한 사망보험금(최저보증 사망보험금).
2. 변동사망보험금 : 초과적립액(실제준비금-예정준비금)에 따라 추가된 후의 사망보험금.
3. 예정준비금 : 예정이율에 의해 계산된 준비금.
4. 실제준비금 : 실적이율에 의해 계산된 준비금.

2)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1)]

□ 보험금액의 변동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택일

o 초과적립금(실제적립금 - 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을 일시납으로 하여 계산한 보험금액을 기본보험금액에 가산하는 방법

o 기본보험금액에 상당하는 적립액에 비례한 보험금액을 기본보험금액에 가산하는 방법

o 기본보험금액에 계약자적립금을 가산하는 방법

□ 초기투자자금

o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펀드별로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음

- 총자산의 1%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억원
- 총자산의 1%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총자산의 1%

o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앞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6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

□ 펀드의 유형 및 수

o 펀드의 유형

- 채권형 : 채권, 대출, 단기자금 등으로 운용
- 혼합형 : 채권, 대출, 단기자금, 주식(50% 이내) 등으로 운용

o 펀드는 3개 이내에서 설정 가능

1) 2001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상품의 주요 내용임.

□ 각종 운용비용 및 수수료

o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α%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월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구분·관리

o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 : 특별계정 운영을 위한 수수료를 연 기준으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β%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월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구분·관리

□ 자산의 평가방법

o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

o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

□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o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매년 몇 회의 범위 내에서 회사에 문서로 펀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이 경우 변경요구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름.

o 회사는 계약자적립금의 γ%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음.

□ 판매 관련 사항

o 변액보험 판매자는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등 변액보험의 특성을 설명한 변액보험 설명서를 청약 전에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자세히 설명하여야 함.

o 변액보험 판매자는 청약 전에 특별계정 결산사항을 포함한 특별계정의

운영내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o 변액보험 판매자는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 등을 예상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부실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됨.

o 회사는 계약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장래의 투자수익률을 0%, 예정이율, 예정이율×1.5배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예시하여 모집안내자료를 작성할 수 있음.

다. 변액보험의 운용 방향

□ 오랜 산고 끝에 도입되는 신상품인 만큼 주요국의 변액보험 운용현황, 실패 및 성공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약자와 회사가 win-win이 될 수 있는 상품운용이 필요함.

□ 보험기간은 생명보험의 장기성, 장기 안정적인 자산운용 등을 고려하여 단기상품보다는 장기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o 초기에 도입되는 변액보험은 종신보험이지만 향후 운용예정으로 있는 생사혼합보험 등도 단기상품보다는 장기상품으로의 운용이 요망됨.

o 동 상품의 특성이 자기책임원칙에 기초를 둔 high risk high return 성격이 매우 강하지만 보험의 성격을 더 강조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특약을 부가하는 등의 운용이 필요함.

o 단기상품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금융형상품으로 운용되는 등 변칙적인 판매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보험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음.

□ 모집단계에 있어서는 전통형보험과의 차이점 등을 주지시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o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장되지만 투자실적 저조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공지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가입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o 확정되지 않는 수익률 등을 예상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부실 판매는 자제해야 함.

□ 전문적인 판매조직의 양성 및 건전한 공시제도의 완비에도 온힘을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변액보험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소비자 선택 폭의 증대,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품운용이 필요함.

o 종신형 변액보험 도입이 성공적일 경우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 등으로의 확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향후 보험사 지급여력전망과 대응방안*

가. 머리말

□ 현행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지난 1999년 5월 IMF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로 도입된 것임.

o 감독당국은 분기별로 지급여력비율을 점검하여 동 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구조조정을 추진중임.

o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이 미달되어 퇴출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증권시장의 회복, 손해율 감소 등으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보사의 경우 소정비율의 상향에 따라 지급여력기준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증권시장의 회복이 불분명하거나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이차손이 확대되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o 손보사의 경우에도 장기보험의 이차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지급여력비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는 현행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금리 등 다른 모든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주가지수별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과 필요증자금액을 전망해 보고자 함.

□ 또한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사의 경영전략에 대해서도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양성문 팀장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 견해임을 밝힘.

간략히 언급하고자 함.

나. 향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전망

□ 현행 지급여력제도 하에서의 지급여력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text{지급여력비율} = \frac{\text{지급여력금액}}{\text{지급여력기준}} \times 100\%$$

<<u>분석의 기본가정</u>>

□ 지급여력금액의 변동

o 지급여력금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향후 이차손익 규모, 사차손익 및 비차손익 규모(손보는 보험영업손익 규모), 주가지수에 따른 자본조정의 변동으로 한정함.

o 주요 항목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이차손익 규모 = (실질자산운용수익률- 준비금부담이율)×책임준비금 (단, 손보의 경우에는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
  - ㆍ실질자산운용수익률은 투자비용을 감안하고 Hardy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되,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투자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감안하여 종합주가 600포인트부터 100포인트마다 0.5%p씩 상향 조정
  - ㆍ준비금 부담이율은 2001년 5월부터 예정이율이 평균 1% 하락함에 따라 생보사 및 손보사별로 평균예정이율이 연차별로 점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준비금 부담이율 하락폭은 2001년 0.1%p, 2002년 0.3%p, 2003년 0.1%p로 가정
  - ㆍ총자산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손익 만큼만 변동한다고 가정
- 생보사의 사차손익은 최근 5년간 평균 사차손익에 연평균증가율을 곱

하여 산정하며, 비차손익은 최근 5년간 평균 비차손익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손보사의 보험영업손익(일반보험)은 2002년부터 매년 15%씩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단, 2001년은 최근 5년간 평균 보험영업손익 적용)
- 자본조정의 변동 = (기준 주가지수 - 2001.3월말 주가지수)/ 2001.3월말 주가지수 × 보유 투자유가증권금액

  · 주가지수는 600, 700, 800의 3가지 경우로 가정

o 분석대상회사는 외국사 및 매각 추진중인 대한생명을 제외한 국내 생보사 12개사 및 8개 원수 내국손보사임.

□ 지급여력기준의 변동

o 보험사의 현행 책임준비금 적립액 및 상품포트폴리오는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o 생보사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소정비율 상향 조정(2001년 3월 : 25% → 2004년 3월 : 100%)

o 손보사의 경우 모든 보험종목의 보유보험료 및 3년 평균 보험금(발생손해액)은 향후에도 동일

<분석결과>

□ 생보사의 경우 소정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연차별로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하며,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와 동일한 패턴을 보임.

□ 다만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상당폭 개선되어 연차별로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회사가 감소하고 있음.

o 생보사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600 800일 때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의 수는 2002년 3월에는 8 3개사, 2003년 3월에는 10 4 개사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증자금액은 종합 주가지수 600 800일 때 1,110억원 7,895억원으로 추정됨.

o 손보사의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600 800일 때 2002년 3월에는 4 1개사, 2003년 3월에도 4 1개사가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증자금액은 종합 주가지수 600 800일 때 70억원 1,860억원으로 추정됨.

<표 1> 주가지수별/연도별 지급여력비율 100% 미달회사수 및 필요증자금액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2002.3	2003.3
주가지수 600	생보사	8(3,455)	10(7,891)
	손보사	4(710)	4(1,855)
주가지수 700	생보사	5(1,788)	6(3,284)
	손보사	1(168)	3(703)
주가지수 800	생보사	3(1,111)	4(1,178)
	손보사	1(67)	1(297)

주 : ( )안은 필요증자금액임.

다. 대응방안

□ 2000년 들어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주된 요인은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조정의 감소와 예정이율을 하회하는 자산운용수익률로 인한 이차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1년의 경우에도 보험사들의 투자환경은 현 단계에서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투자환경의 호전도 필요하지만 보험사 내부적으로도 상품전략이나 자산운용전략 등과 같은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 商品戰略

□ FY2000에 생명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특약제외)은 총 563종으로 FY'99(290종)에 비해 94.1% 증가하였음.

o 보험종류별로 보면 제3분야보험 201종(상해 87종, 질병 108종, 기타 6종, 단체보험 제외)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이 306종(단체보험 제외)으로 54.4%의 점유율을 보임.

o 연금보험의 개발건수는 2001년 1월 1일 신개인연금저축의 도입에 따라 4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2> 보험종류별 상품개발 추이

(단위 : 종, %)

구 분	보 장 성			저 축 성				단 체 보 험	총 계
	일반	제3분야	계	교육	연금	생사혼합	소계		
FY1999	99	122	221 (76.2)	0	23	19	42 (14.5)	27 (9.3)	290
FY2000	105	201	306 (54.4)	3	117	73	193 (34.3)	64 (11.4)	563

주 : ( )안은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IMF체제 진입 이후 국내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 개발은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o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강화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확대는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들어 종신보험의 판매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o 이와 함께 종신보험 등에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의 지속적인 개발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드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상품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조정이 요구됨.

o 2001년 3월말 현재 국내 생보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9.4%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년말 보다 2.5%p 증가한 것임.

o 그러나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향후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함.

o 저축성보험의 판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판매초기부터 준비금에 부담을 주고 적립률이 높기 때문에 이차손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높은 수준의 고정금리는 회사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비중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o 손보사의 경우 장기보험의 비중 확대는 지급여력기준을 증대시켜 지급여력비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일반보험의 비중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보험의 경우 순수보장성 보험 상품개발을 통한 준비금 적립 부담 감소를 추진하고 보험기간의 단기화와 예정이율의 적절한 조정(예 : 자산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으로 금리 리스크를 축소하여야 할

것임.

□ 실적배당상품의 적극적 활용

o 일부 생보사를 중심으로 7월부터 변액보험의 판매가 시작될 전망임.

o 변액보험의 성공적 도입은 생보사의 투자리스크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니드에도 부응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성공사례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資産運用戰略

□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생/손보사 모두 이차손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o 이차손 규모의 확대는 지급여력을 감소시켜 지급여력비율을 떨어뜨림으로서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여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적정 자산운용수익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며, 지난 2000년 일본의 많은 보험사가 파산한 주된 원인이 자산운용의 부실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하에서 자산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음.

o 그러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포트폴리오의 적절한 구축이 필요함.

o 주식시장의 경우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주식투자 비중을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o 채권투자의 경우 국공채 투자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채의 경우 우량 회사채에 대한는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BBB)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회사채는 매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o 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우량고객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약관대출의 확대 및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o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과다한 회사는 부동산의 일부를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o 저금리 추세, 원화약세 등을 고려할 때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함.

□ 체계적인 ALM 시스템 구축

- o 보험계약의 유지율 상승 추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과학적 ALM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야 할 것임.
- o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운용기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자산운용 전문가의 양성을 도모하고, 전문투자기관과의 제휴, 자산운용의 아웃소싱 추진 등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1. 보험사 표준이율 인하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장기화 추세와 보험회사의 예정이율 인하에 따라 표준이율의 인하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표준이율 인하 배경

o 2000년 4월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도입시 표준이율을 적용한 이후, IMF 외환위기 이래 꾸준히 하향안정화 되어 온 시장금리가 최근 들어 실질금리 1%대가 지속되는 등 저금리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예정이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표준이율의 변경내용

o 보험업감독규정 제115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이율 및 위험률 등)에서 정하는 표준이율의 정의를 "매사업년도 개시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 변경하였음.
o 표준이율을 금리확정형 배당보험 5.5%, 금리확정형 무배당보험 6.5%, 금리연동형보험은 신규상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시행세칙 규정을 신설함(제18조 4항).

□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영향

o 대부분의 회사가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율과 표준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이율 인하시 예정이율 인하가 예상되므로 결국 보험료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o 표준이율의 1% 인하는 약 10% 15%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어 저금

리 시대에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역마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o 그러나, 금년 5월 표준이율 변경 이후에도 실질금리가 0%대에서 등락을 보이는 등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금리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o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년 하반기에 또 다시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감독규정 제115조의 개정으로 향후 표준이율의 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큼.

(이상우 연구원)

2. 생명보험 사업비차배당 도입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업비차이익 발생시 이를 재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사후정산 가격인 사업비차배당을 금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함.

□ 도입배경

o 사업비차배당제도는 사업비차이익 발생시 이를 재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3이원(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별 배당제도가 완료되어 1994년부터 추진된 생명보험 가격자유화가 모두 마무리됨.

□ 사업비차배당 제도의 개정 주요내용

o 배당대상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대상으로 기시행중인 위험률차배당 및 이자율차배당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으로 함.

o 배당금액 : 보험가입금액×사업비차배당률

o 배 당 률 :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o 사업비차배당금은 보험계약자별로 사업비차이익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생보사의 경우 2001사업년도 결산부터는 사전에 배당재원을 적립한 후 배당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

□ 사업비차배당 제도의 개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영향 및 향후 전망

o 대부분의 국내 생보사들이 변경 전에는 비차배당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요인이 있

었으나,

o 개정 후부터는 배당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재원이 부족한 생보사의 경우에는 배당보험에 대한 판매가 더욱 축소될 전망임.

o 또한, 최근 유배당보험에 대한 이익배분 기준에서 주주지분이 10% 이하 축소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무배당상품에 대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o 특히,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신설사의 경우 배당재원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무배당보험에 대한 판매확대 등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o 대형사의 경우에도 최근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이 저하되면서 배당상품의 판매축소가 예상됨.

o 따라서 향후 생보사의 대부분이 무배당보험상품의 판매확대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무배당상품에 대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사업비차배당제도의 개정에 따른 생보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배당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기여도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보험회사의 손익기여도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져 가격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o 사업비차배당 제도의 도입에 따라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가격경쟁에 따른 손익위주의 경영이 정착되어 계약자의 기여도에 따른 등급별 계약자배당 차별화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임.

(이상우 연구원)

3. 보험회사 상품판매 추이 분석

금감원은 최근 생·손보사 상품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상품별 판매추이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음.

□ 2001. 3월말 현재 생·손보사 상품판매현황을 살펴보면 생보 451, 손보 1,034, 총 1,485개의 상품이 인가·판매되고 있음.

□ 생보의 경우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 주력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이 그 뒤를 잇고 있음.

o 보험회사들은 보험소비자의 Needs가 있는 분야를 집중 개발하는 한편,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판매결과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고 있음.

<표 1> 생보 상품판매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9. 12	2000. 12	2001. 3
보장성	406	291	343
연 금	105	64	44
교 육	28	12	9
기 타	87	59	55
합 계	626	426	451
특 약	495	549	688

o 최근의 상품개발 성격은 보장성보험으로 금리연동형, 무배당형태로 개발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o 또한 보험소비자가 값싼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생보 상품개발 추이

(단위 : 건)

구 분	2001. 1	2001. 2	2001. 3	2001. 4	2001. 5
저축성	22	27	27	28	17
보장성	67	60	174	166	104
총 계	89	87	201	194	121
특 약	51	46	113	103	64

o 개인연금의 경우 2001. 1월부터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에 관한 환수 요건이 강화된 신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계약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 손보의 경우 일반손해보험 중에서는 가계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등 특종보험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장기손해보험이 주로 무배당 형태로 개발되고 있음.

<표 3> 손보 상품판매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9. 12	2000. 12	2001. 3
해 상	217	144	144
자동차	15	39	59
특 종	376	470	510
장 기	223	213	247
기 타	55	63	74
합 계	886	929	1,034

o 손해보험의 상품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현행 공적건강보험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의료비 보장부분을 보완하는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o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고보장형 자동차보험 상품의 개발추세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특종보험에 주력하는 양상임.

<표 4> 손보 상품개발 추이

(단위 : 건)

구 분	2001. 1	2001. 2	2001. 3	2001. 4	2001. 5
상 해	1	1	1	9	22
건 강	2	1	1	24	12
상해+건강	6	7	1	13	52
기 타	1	1	4	16	26
합 계	10	10	7	62	112

□ 향후 보험상품의 개발은 생보의 경우 종신보험을 주축으로 하되, 상해, 질병 등 건강보험에 관한 두터운 잠재적 수요를 겨냥하여 다양한 의료보장보험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손익귀속 등을 감안하여 무배당상품 위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o 손보의 경우는 각 손보사가 장기손해보험의 역마진 리스크를 인지하는 가운데 단기담보 위주의 상품개발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짐.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개별위험을 담보하는 상품보다는 이를 Package화하는 종합담보형상품개발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임원배상책임 등 신종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개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지재원 연구원)

4. 금융기관 업무제휴 현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2000.1)」의 제정으로 업무제휴의 원칙이 정립되고, 전자금융이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제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1. 4월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제휴가 건수가 '99년말 987건에서 2000년말 2,596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하였다고 발표함.

□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의 경우 1999년말 대비 2000년말에 2.8배 증가(271건→771건), 증권은 3.9배 증가(129건→507건), 보험은 3.7배 증가(209건→765건) 하는 등 현저한 증가세를 시현함.

o 금융권역별로 자치하는 비중은 은행업이 2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험 29.5%, 비은행 21.3%, 증권업 19.5%의 순임.

□ 업무제휴형태별로는 업무위탁이 1,299건인 반면 업무수탁은 137건에 불과하며, 최근 들어 금융회사간 업무제휴보다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업무제휴가 활발한 것으로 보임.

<표 1> 금융회사의 업무제휴 현황(2000년말 현재)

(단위 : 건)

업종 \ 구분	위탁	수탁	기타	계
은 행	235 (18.1)	105 (76.6)	431 (37.2)	771 (29.7)
증 권	313 (24.1)	2 (1.5)	192 (16.6)	507 (19.5)
보 험	300 (23.1)	4 (2.9)	461 (39.7)	765 (29.5)
비은행	451 (34.7)	26 (19.0)	76 (6.6)	553 (21.3)
계	1,299 (100.0)	137 (100.0)	1,160 (100.0)	2,596 (100.0)

주 : 1) 계약건수 기준으로 금융기관간 위·수탁 제휴계약의 경우 위탁계약에만 계상.
2) 기타 : 위·수탁 구분이 모호하거나 인가받은 업무가 아닌 경우.
3) ( )는 각 금융권역별 비중.

<업무유형별 현황>

□ 업무유형별 증가현황은 전자금융 및 전략적제휴 분야에서 각각 전년대비 678%, 64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산운용(167%), 일반위탁(76%), 자금결제(68%)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

o 전자금융관련 업무제휴는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보험사이버몰 운영 등의 활성화에 따라 1999년말 79건에서 2000년말에는 615건으로 증가함.

o 전략적제휴 분야에서는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개발 등의 활발한 추진으로 1999년말 27건에서 2000년말 202건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업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에는 자금결제(34.7%), 일반위탁(29.4%), 자산운용(11.2%) 순에서 2000년에는 전자금융(23.7%), 자금결제(22.1%), 일반위탁(19.7%) 순으로 변화하였음.

<표 2> 업무유형별 업무제휴 건수 변동추이

(건, %)

구 분	1999년말	2000년말	증가율
전자금융	79 (8.0)	615 (23.7)	678%
자금결제	342 (34.7)	573 (22.1)	68%
자산운용	111 (11.2)	296 (11.4)	167%
일반위탁	290 (29.4)	511 (19.7)	76%
전략적제휴	27 (2.7)	202 (7.8)	648%
기 타	138 (14.0)	399 (15.4)	189%
총 계	987 (100.0)	2,596 (100.0)	163%

주 : 1) 2000. 12월말 현재 유효한 업무제휴의 계약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과거 발생하였다가 소멸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음.
2) ( )는 연말기준 업무제휴유형별 기준.

<금융권역별 현황>

□ 2000년에는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업무제휴가 활발

o 은행 :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관련 업무제휴가 활발해짐에 따라 제휴건수가 1999년말 271건에서 2000년말 771건으로 2.8배 증가함.

o 증권 : 계좌개설을 포함한 자금결제 및 금융포탈 구축을 위한 컨텐츠 제휴 등으로 인해 제휴건수가 1999년말 129건에서 2000년말 507건으로 3.9배 증가함.

o 보험 : 보험사이버몰 운영 등을 위한 전자금융 관련 제휴와 손해사정업무의 외주 등 일반위탁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휴건수가 1999년말 209건에서 2000년말 765건으로 3.7배 증가함.

o 비은행 : 구조조정 추진 및 지역적 영업한계 등으로 제휴건수가 1999년말 378건에서 2000년말 553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침.

<표 3> 금융권역별 업무제휴 건수 변동추이

(건, %)

업종 \ 시기	1999년말	2000년말	증가율
은 행	271 (27.5)	771 (29.7)	185%
증 권	129 (13.1)	507 (19.5)	293%
보 험	209 (21.2)	765 (29.5)	266%
비은행	378 (38.3)	553 (21.3)	46%
계	987 (100.0)	2,596 (100.0)	163%

주 : ( )는 연도기준 금융권역별 비중.

□ 금융권역별 업무제휴유형의 비중은 은행 및 증권업에서 전자금융(각각 30.4%, 34.3%), 보험업은 일반위탁(25.2%), 비은행업에서는 자금결제(46.7%)가 가장 높음.

<표 4> 금융권역별·유형별 현황(2000년말 현재)

(건, %)

유형 \ 업종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계
자금결제	89 (11.5)	197 (38.9)	29 (3.8)	258 (46.7)	573 (22.1)
자산운용	117 (15.2)	21 (4.1)	89 (11.6)	69 (12.5)	296 (11.4)
전자금융	234 (30.4)	174 (34.3)	180 (23.5)	27 (4.9)	615 (23.7)
일반위탁	108 (14.0)	61 (12.0)	193 (25.2)	149 (26.9)	511 (19.7)
전략적제휴	40 (5.2)	18 (3.6)	141 (18.4)	3 (0.5)	202 (7.8)
기 타	183 (23.7)	36 (7.1)	133 (17.4)	47 (8.5)	399 (15.4)
총 계	771 (100.0)	507 (100.0)	765 (100.0)	553 (100.0)	2,596 (100.0)

주 : ( )는 각 업무제휴 유형별 비중.

<향후전망>

□ 향후 전자금융의 활성화와 금융겸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 업무제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고객의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 상호간 웹사이트 제휴, 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 포괄적·전략적 제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금융권역간 업무제휴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

o 전자상거래업체와의 자금결제 업무 제휴, 인터넷 포탈서비스 업체와의 상호광고, 기타 증권정보 제공, 사이버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지재원 연구원)

해외보험동향

1. FY2000 일본 보험산업 실적 분석

FY2000 일본의 보험산업은 총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생명보험에서 역마진 금액이 늘어나는 등 정체현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FY2000 일본의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총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아직 보험산업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FY2000 일본 생명보험사의 실적은 파산한 東京, 千代田, 大正, 第百, 協榮生命을 제외한 41개사가 집계되었으며, 총자산 및 신계약의 증가, 지급보험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아직 정체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o FY2000의 신계약 금액은 개인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2.4% 증가한 129조 5,088억엔(전환계약 포함)으로 1993년 이후 7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21.6% 감소한 6조 8,654억엔으로 집계됨.
  - FY2000 이후 東京生命 등 5개 생보사가 파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明治生命 및 외국사, 손보 자회사의 소비자 니드에 대응한 신상품 판매 호조와 신설보험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각되면서 신규계약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o 보유계약은 개인보험이 전년대비 2.1% 감소한 1,243조 6,427억엔으로 4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386조 5,996억엔으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 개인보험의 보유계약 금액의 감소는 FY2000 이후 5개 생보사가 파산하면서 대형 및 중견 생보사의 해약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o FY1999에 처음으로 감소했던 총자산은 FY2000 신계약 증가 등으로 前年度에 비해 4조 3,762억엔 증가(2.4%)한 183조 1,029억엔을 기록하였음.

o 41개 생보사의 총수입보험료는 FY 1998이후 3년 연속 감소한 25조 8,487억엔으로 전년도보다 2,585억엔 감소(1.0%)하였음.

- 이는 FY1989 수입보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년 보험사의 연쇄도산으로 대형 및 중견사의 신뢰성이 하락하여 실효해약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손해보험 계열 12개 생보사의 경우 11개사가 수입보험료 및 신계약의 증가를 보여 수입보험료에서 전년대비 23.1% 증가한 4,621억엔을 기록하였으며,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도 대부분이 수입보험료 및 신계약의 증가를 보였음.

o 사업비는 대형 및 중견보험사(10개사)가 영업직원수를 감축(13.7%)하는 등의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신규계약 증가에 따라 FY1994 이후 6년만에 0.9%의 증가세를 보였음.

o 일본 금융청이 FY2000부터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초이익[1]은 이차손과 비차손의 악화로 인하여 전년대비 9.4% 감소한 2조 488억엔(FY1999 2조 2,617억엔)으로 집계됨.

- 초저금리의 지속과 자산운용 악화, 신계약 증가로 인하여 이차손이 증

1) 기초이익은 당해 사업년도의 보험수지 및 이자수입 등의 수익을 합산한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이차·사차·비차손익의 합계액과 동일한 개념으로도 사용됨.
- ·기초이익 = 경상이익 - 투자손익 - 임시손익
- ·투자손익 = (금전신탁 운용이익-운용손실)+(유가증권 매각이익-유가증권 매각손실)+(유가증권 평가이익-유가증권 평가손실)+(환차익-환차손)
- ·임시손익 = (개별 대손준비금 이월액+특정 해외채권 준비금 이월액+대부금 상각)+재무재보험 수수료-위험준비금 이월액

가하고 비차익이 감소한 반면, 사차익은 25.6% 증가한 2조 5,195억엔으로 집계됨(이차손 1조 4,706억엔(+5.1%), 비차익 9,999억엔(-12.5%)).

- 기초이익은 3이원(利源)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이차손 규모의 확대는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당분간 사차익으로 이차손을 보전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FY2000 일본 생보사의 사업실적

(단위: 억엔, %)

구 분		FY1998		FY1999		FY2000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총 자 산		1,917,684	0.9	1,787,267	-6.8	1,831,029	2.4
수지상황	수입보험료	288,368	-4.5	261,072	-9.5	258,487	-1.0
	보험금	177,342	1.9	143,662	-19.0	129,659	-10.8
	해약환급금	110,267	-20.3	105,919	-3.9	96,818	-9.4
	배당금	14,524	-3.8	13,807	-4.9	12,878[3)]	-6.7
	사 업 비	38,723	-4.1	35,311	-8.8	35,632	0.9
	보험수지차	-52,488	-6.7	-37,628	-28.3	-16,500	56.1
당기순이익		3,966	-67.0	9,360	136.0	7,022	-33.3
자산운용수익		84,686	-11.7	79,013	-6.7	56,117	-40.8
자산운용수익률		2.01	-0.47p	2.40	0.39p	2.32	-0.08p
역마진 금액		27,332	-	13,993	-48.8	14,706	5.1

주 : 1) FY1998은 파산 2개사(大正・第百生命)를 제외한 44개사, FY1999 및 FY2000은 파산 5개사(東京, 千代田, 協榮生命 포함)를 제외한 41개사의 수치임.
2) 보험수지차=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
3) 잠정치임.

자료 : 1)『インシュアランス(生保版)』, 平成13年 7月 第4号 및 각 년호.
2)『保險每日新聞(生保版)』, 平成13年 6月 29일.

□ FY2000 일본 손해보험사의 실적은 파산한 第一火災를 제외하면 30개사가 집계되어 총자산과 당기순이익 등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원수 정미수입보험료가 4년 연속 감소하였고 손해율이 3년 연속 악화되는 등 정체현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o 경상수익은 보험영업수익이 9조 7,034억엔, 투자영업수익이 6,074억엔, 기타 경상수익이 384억엔으로 전년대비 4,248억엔 감소한 10조 3,492억엔임.

o 경상비용은 보험영업비용이 8조 3,339억엔, 투자영업비용이 1,994억엔, 영업비용 및 일반관리비가 1조 4,098억엔, 기타 경상비용이 700억엔으로 전년대비 4,378억엔 감소한 10조 131억엔임.

o 이 결과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130억엔(4.0%) 증가한 3,361억엔이며, 부동산 및 동산처분 손익 등의 특별손익을 가감하고 주민세, 법인세 등 조정액을 가감한 당기이익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4억엔(5.4%) 증가한 1,047억엔임.

o 총자산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34조 7,156억엔으로 FY'98 이후 2년 연속 꾸준한 증가를 보였음.

o 총자산 중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31조 4,907억엔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하였는데, 효율적 자산운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정책으로 인하여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16.0% 감소한 6,276억엔으로 나타남.

o 보험인수 상황을 보면 수입 적립보험료를 포함한 원수 정미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9조 617억엔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반면, 원수 정미수입보험료에서 재보험을 가감하고 수입 적립보험료를 차감한 정미수입보험료는 0.6% 증가한 6조 8,741억엔으로 4년만에 증가세를 기록함.
- 원수 정미수입보험료의 감소는 적립보험료 수입이 전년대비 9.9%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정미수입보험료가 증가한 것은 자동차 수요확대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의 증가와 특종보험, 자동차배상책임 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인함.

<표 2> FY2000 일본 손보사의 사업실적

(단위: 억엔, %)

구 분	FY1999		FY2000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총 자 산	302,184	-2.0	34,7156	14.9
원수정미수입보험료	92,002	-2.8	90,617	-1.5
정미수입보험료	68,315	-1.2	68,741	0.6
보험금	37,251	2.3	37,652	1.1
책임준비금 환입액	5,896	62.1	5,110	-13.3
이자 및 배당금 수입	7,475	-13.2	6,276	-16.0
사 업 비	26,396	-3.2	25,814	-2.2
보험인수이익	1,307	-45.7	506	-61.3
경상이익	3,230	-13.0	3,361	4.0
당기순이익	994	7.8	1,047	5.4
손해율	59.3	5.8p	59.5	0.2p
사업비율	38.6	-2.0p	37.6	-2.6p
자산운용수익률	2.65	-0.28p	2.31	-0.34p

주 : 1) FY2000 일본 손해보험협회 가맹된 30개 손보사의 실적임(第一火災 제외됨).
2) 일본에서는 원수정미수입보험료를 「원수보험료+적립보험료」, 정미수입보험료를 「원수정미보험료 - 재보험관련보험료- 적립보험료」의 개념으로 사용함.

자료 : www.sonpo.or.jp

o 보험종목별 원수정미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각사의 적극적인 상품개발 및 상품판매로 1.8%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하였음.

- 자동차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힘입어 1.0% 증가하였으나, 화재보험은 주택착공 건수의 하락 및 가격자유화의 영향으로 4.9% 감소하였고, 상해보험도 적립보험의 감소로 인하여 큰 폭의 침체를 보였음(8.0%).

o FY2000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401억엔(1.1%) 증가한 3조 7,652억엔으로 집계되었으며, 손해율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59.5%로 3년 연속 손해율이 증가하였음.

- 손해율의 증가는 수입보험료에서 40.3%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

험에서 차량도난 및 일부 지방에서의 홍수, 우박 등의 영향으로 2.2%p 악화되었기 때문임.

- 한편, 화재보험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대규모 태풍손해가 없어 전년 대비 6.6%p 개선된 38.3%의 손해율을 보임.

<표 3> FY2000 일본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현황

(단위: 억엔, %)

보험종목	원수정미수보	증감률	구성비	손해율		
				FY1998	FY1999	FY2000
화재보험	15,836	-4.9	17.5	42.5	44.9	38.3
해상 및 운송	2,505	-0.2	2.8	63.3	66.5	62.1
상 해	18,313	-8.0	20.2	44.5	45.2	45.3
자 동 차	36,500	1.8	40.3	61.3	63.0	65.2
기 타	7,586	4.0	8.4	59.9	63.1	61.8
소 계	80,738	-1.8	89.1	-	-	-
자 배 책	9,878	1.0	10.9	73.5	72.9	75.9
합 계	90,617	-1.5	100.0	57.5	59.3	59.5

자료 : 『保險每日新聞(損保版)』, 2001年 7月 4日.

≤ 시사점과 향후 전망 ≥

□ FY2000 일본 보험산업의 특징은 생·손보사에서 대형·중견사와 소형사 간 수입보험료 성장의 양분화 현상이 현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생명보험사의 경우 최근 연쇄도산으로 인하여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위 19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및 보유계약 금액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외국계 및 손보계 자회사가 대상이 되는 소형사의 경우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o 반대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중상위권 14개사의 수입보험료는 증가(전년

대비 +0.4%)하였으나 소형사는 감소하였거나 일부 손보사의 경우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 손보사의 양분화 현상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니드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로 대형사의 인지도가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본정부의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일본 보험산업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체현상을 탈피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생명보험의 경우 물가하락, 주식시장 침체,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당분간 자산운용수익의 큰 폭의 개선이 어려워 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o 대형사의 경우 사차익과 비차익으로 역마진을 보전할 수 있으나 중견사의 경우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차손 규모가 커질 경우 파산회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o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본의 금융청이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의 인하를 허용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생보협회는 예정이율 인하시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o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제3분야 보험에의 적극적 진출, 가격자유화에 의한 소비자 니드에 부응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적립형 보험의 판매축소, 자동차 판매증가 등이 진행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기업성 보험에서는 정체현상이 예상되지만 개인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 및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수입보험료의 성장이 예상됨.

(이상우 연구원)

2. 일본 금융심의회, 예정이율 인하 허용 건의

일본의 금융심의회는 초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역마진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검토해 왔던 파산전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의 검토안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청에 건의할 예정임.

□ 일본 금융심의회의 예정이율 인하 허용건의에 대한 배경

o 일본의 생명보험업계는 거품경제기인 1980년대 후반 일시납 양로보험 판매시 약속한 예정이율(5% 6%)이 초저금리 등의 지속으로 자산운용 수익률(2%대)을 하회하는 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FY2000에는 그 규모가 1조 4,706억엔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o 일본의 금융심의회[2] 제2부회는 작년 11월 금융재생위원회 위원장(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해당)의 의뢰를 받고 보험회사의 역마진 확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비상수단으로써,

o 그 동안 검토해 왔던 기존계약의 예정이율 인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검토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금융청에 7월초 최종보고할 예정임.

o 일본의 금융청은 7월초 금융심의회로부터 검토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은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02년도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

o 그러나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의 감액과 연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보험업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

2) 일본의 금융심의회는 총리산하의 금융관련 자문기관으로 조직체계는 총회, 분과위원회, 금리조정분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도부로 나누어지며, 분과위원회는 다시 제1부회, 제2부회로 구성됨. 또한,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위원장, 위원장 대리, 위원, 옵저버, 임시옵저버, 정부당국으로 이루지며, 각 사안에 따라 워킹그룹이 별도로 마련되어 워킹그룹에는 좌장, 위원, 옵저버로 구성됨.

한 진통이 수반될 전망임.

□ 금융심의회가 결정한 예정이율 인하에 대한 검토안의 주요 내용

o 금융심의회는 보험회사의 역마진 심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연쇄파산 등 보험회사의 신뢰성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에 대하여 예정이율의 인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o 다만, 기존계약에 대해 예정이율을 보험회사가 파산 전에 인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함.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되는 상호보험회사의 사원총회 승인
- 보험계약자의 우편 투표를 통한 동의
- 법원 등 제3기관의 예정이율 인하에 대한 타당성 판정
- 경영자의 책임, 계약자 이외의 채권자의 책임 명확화
- 철저한 정보공시(사차익 및 비차익의 공시)

□ 계약자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 변천추이

o 일본에서는 패전 후 1946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악화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예정이율 보장이 곤란하여 파산 전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를 실시한 바 있었음.

o 그 후 보험계약자의 예정이율 인하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정소송사건이 있었으며, 1959년의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위헌과 합헌의 판결이 없이 종결됨.

o 1996년 신보험업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대장대신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파산전 계약자에 대한 예정이율 변경이 가능하였음.

o 그러나 헌법에서 정하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대장성과 법제국

과의 의견 불일치로 1996년 신보험업법이 제정되면서 동 규정이 삭제되었음.

□ 최근 파산한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o 갱생특례법의 특례조치에 따라 2001년 3월까지는 파산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및 입원보험금의 책임준비금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이율의 변경이 가능함.

o 1999년 6월에 파산한 동방생명의 경우 평균예정이율 4.79%에서 1.5%p의 예정이율 인하가 시행되었으며, 주력상품인 정기부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20 30%, 일시불 종신보험 경우 연령 및 계약시기에 따라 최대 80%의 보험금 삭감이 될 수도 있음.

o 책임준비금의 삭감의 규모는 파산회사의 부실규모를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이 인수회사와 인수조건으로 합의하면서 결정되는데, 최근 파산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삭감현황은 第百·大正·千代田生命이 10%, 協榮生命 8%, 東京生命 0%(예정)임.

<u>< 보험계약자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를 둘러싼 논란 및 반응 ></u>

□ 금융당국의 의견

o 금융청은 예정이율 인하로 조기에 생명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진행시켜 더 이상의 도산을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역마진을 방치할 경우 손실이 늘어나 계약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정이율의 인하를 허용해야 하는 의견이 강함.

o 자민당의 보험소위원회는 재무구조가 악화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

청의 적기시정조치로 예정이율의 인하를 명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대형 생명보험사의 의견

o 2000년도 생명보험사 결산발표 기자회견에서 일본생명의 사장은「기존 계약의 예정이율 인하는 필요없으며,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강한 부정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o 보험금 삭감, 보험료의 인상 등 계약자에 영향을 미치는 예정이율 인하 전에 생명보험업계는 사업비의 절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라고 언급함.

o 다만, 역마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정이율 인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생명보험산업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미온적 태도를 취함.

o 그러나 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정이율 인하를 모든 생명보험회사에게 강제화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영이 악화된 회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o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계약자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사차익 및 비차익의 공시」등 정보공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금융청의 의견에 대하여 생명보험업계는 상품전략을 타사에 알려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외국계 보험사

o 외국계 보험사는 현재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일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어 상호회사의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o 또한, 외국계 보험사가 판매하는 주력상품이 무배당상품이므로 유배당

상품만 예정이율을 인하할 경우 예정이율의 인하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불평등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일 미국상공회의소는「인하가 실시된다면 일본에서의 보험사업 운영의 사업형태나 취급상품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고, 업계 전체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이상우 연구원)

3. 영국 생명보험산업의 향후 변화 전망[3)]

향후 영국의 생명보험산업은 통합화 추세로 소수 브랜드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시장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며, 새롭게 도입된 스테이크홀더연금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임.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필수품형 보험상품의 인터넷 판매확대와 온라인보험사에 의한 저렴한 맞춤형 서비스가 발전하는 한편, 대면 금융자문서비스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로서 유지·발전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산업의 통합화는 시대의 규준이 되었고,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인수·합병의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수의 대형보험사와 틈새시장의 전문보험사로 구성된 보험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 1990년대 초 정부정책은 사회보장의 민영화와 사적 연금(personal pension)의 성장을 통해 시장을 확대시켜 온 반면, 변화된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 o 상품의 단순화
- o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명하고 낮은 수준의 수수료(charge)
- o 낮은 이윤
- o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한 격심한 경쟁

□ 지속적인 통합추세가 이어진 결과 소수의 브랜드가 지배하는 성숙산업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소수의 브랜드는 유명한 대형 금융기관들에 의해 지분이 소유되는 구조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보험산업 내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것임.

3) David Shelton, "feature : life in 2005", *Money Management*, 2001. 6.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함.

o 낮은 이윤을 가진 신규 도입상품인 스테이크홀더 연금(stakehoder pension)에 의해 고이윤의 쇠퇴기상품들(사적 연금, 양로보험부 모기지, 최종급부기준 연금)이 대체되는 과정을 밟을 것이며, 스테이크홀더 연금시장에서 기업들은 이윤창출을 위해 10% 이상의 시장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사업의 규모와 크기가 생존의 주요조건이 될 것임.

o 정부정책으로 인해 보험사는 단위당 원가를 5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크기의 변화를 의미함.

※ 스테이크홀더 연금(stakehoder pension)이란 기업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확정갹출형 개인연금으로 공적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제도임. 민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수료 한도를 기금의 1% 이내로 제한하며, 연간소득이 1만파운드 2만파운드에 속하는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2001. 10월부터는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중에서 다른 기업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회사 근로자들에게는 가입이 의무화됨.

□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대면자문(face-to-face advice)의 필요성을 없앨 것이라는 예상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금융자문자의 역할은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됨.

o Swiss Re의 설문조사(2000년)에 따르면 대면거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고객의 비중은 1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보험상품의 단순화, 필수품(commidity)화는 금융자문자가 보험상품 선택업무를 할 필요성을 축소시키고, 보험사로 하여금 상품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재정플래닝과 자문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보다 혁신적인 고객서비스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임.

□ 네트워크 경제에서 기업의 힘은 브랜드파워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비금융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하게 되겠지만, 영국에서 비금융기업으로 보험회사에 진입한 브랜드들이 대형 보험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o Virgin, Tesco, Marks & Spencer 등의 경험을 보면 시장진입 이후 높은 시장점유율 획득에 성공하지는 못했음. 다만, 현존 보험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양질의 고객서비스 창출 등의 측면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되어 왔음.

□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고객들은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전문가의 수준에 오를 것이고, 이에 따라 단순한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게 되는 반면, 금융상품들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금융환경의 복잡성도 심화됨에 따라 금융자문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할 것임.

o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거래의 비중은 10% 수준이 되고, 대면자문보다는 우편판매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o 독립금융중개인(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도 대면 자문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기존 고객과의 효과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 인터넷을 핵심적인 사업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임.

□ 영국에서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소비자추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o 노령화

o 교육, 건강, 고용, 퇴직 등과 관련된 사적 준비의 중요성 증대

o 전문직, 관리직, 경영자들의 비중 증대

o 시간의 부족

o 정보 과다

o 보다 유연하고 예측가능성이 줄어든 고용패턴

o 금융지식의 증대와 맞춤형 투자의 확대

□ 위에서 열거한 추세들에 따른 영향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o 정규직 감소, 소규모사업장 소속 피고용인의 증대 등 고용형태의 변화는 생명보험 및 연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임.

o 정보과다로 브랜드파워와 사적 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전통적 브랜드 중 핼리팩스(Halifax), 로이즈-TSB(Lolyd's-TSB), 신규 브랜드 중 인텔리전트 파이낸스(Intelligent Finance), 에그(Egg) 등이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소수의 브랜드만이 생존할 것임.

o 2005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투명한 정보획득과 고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시체제가 만들어질 것임.

- 보험사와 금융자문자와의 현행의 관계가 해체되고, 고객은 부가된 가격(commission)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자문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체제로 변화해 갈 것임. 즉, 금융자문이 상품선택과 분리됨에 따라 커미션이 아닌 피(fee)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가 지불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갈 것임.

□ 향후 5 10년간 보험사-판매채널-고객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전반적인 시장전환이 이루어질 것임.

o 소수의 브랜드가 지배적 지위를 가진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특히 효율화된 업무프로세스, 상품개발, 투자서비스를 갖춘 약 6개 정도의 대형 복합금융그룹이 존재하는 체제를 예상할 수 있음.

- 핼리팩스, 로이즈, 푸르덴셜 등이 유력하며, 나머지 금융그룹은 예측하기 어려움.
- 외국사의 진입과 성공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우며, AXA나 Aegon의 경우 대형 보험사로 성공할 가능성이 큼.

o 판매채널별로는 독립금융자문가(IFAs) 55%, 은행 14%, 직급판매(direct sales) 13%, 보험사 소속 에이전트 8%,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직판(direct writer) 10%의 구성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브랜드파워가 높은 보험사들이 구매자들에게 필수품으로서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온라인 브랜드들이 인터넷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o 선택된 고객을 대상으로 대면형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독립금융중개인(IFAs)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이는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될 것임.

(김혜성 책임연구원)

4. 미국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선진시스템의 응용 사례

미국의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언더라이팅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선진시스템의 폭넓은 활용으로 보험료 할인혜택과 보험회사의 손해율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임.

□ Progressive사와 Hartford 보험그룹은 보다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o Autograph(운전중에만 보험료가 정산되는)와 같은 신상품과 GM의 OnStar, DriveCam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시스템은 언더라이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계약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줌.

<u><프로그램 소개></u>

1. Progressive사의 자동차 보험 상품 : "Autograph"

□ Autograph는 글로벌 위성시스템을 활용, 운전자의 주행시간과 주행장소를 추적하여 차량 사용시에만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 보험(pay-as-you-go auto insurance program)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료 조정을 가능하게 함.

o 운전자의 연령이나 차량연식, 성별, 거주지 등의 전통적 요소 외에도

o 주행여건을 고려하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음.

- 낮시간보다 밤시간 주행이 많을수록, 한적하고 제한속도가 낮은 도로

에서의 주행보다 복잡한 고속도로 주행이 많을 때 보험료는 증가하게 됨.

o 동 보험은 Progressive사의 1991년에 시작된 고객 클레임 처리 서비스인 IRCS(Immediate-Response Claim Service : 보상차량에 완벽한 무선통신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까지 완결해주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비롯됨.

- 1996년 IRV(Immediate-Response Vehicle : 모뎀이 설치된 보상차량)의 현장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토의에서 IRV의 올바른 효용을 위하여 GPS의 사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활용은 차량 추적을 가능하게 하며 동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추적시스템 장비를 부착하게 됨.

o Autograph의 데이타는 위성 항해 시스템의 삼각측량에 근거하여 차에 장착된 비디오카세트 사이즈의 장치로부터 수집되며 보험 가입자들은 회사가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동의 양식에 서명하게 됨.

- 장착비용으로 차량 한대당 1 달러, 부가되는 차량 한대당 15달러가 부과됨.

- 또한 한달에 15불의 요금을 별도 지불함으로써 도난차량 되찾기, 원격 도어록, 도로 서비스, 방향안내 서비스와 배터리 체크 등의 부가서비스가 추가됨.

□ 휴스턴에서만 다루어지던 동 보험은 1999년 Progressive사의 3번째 큰 시장인 텍사스 주 전역에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는 신계약 체결을 중단한

상태임.

o 사무실로 가득한 북쪽에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가 통근하기 때문에 휴스턴이 pilot site로 선정되었으며, 1999년 텍사스에서 거수한 보험료는 55,800만 달러로 Progressive사의 전 종목 중 계약비중 8.8%를 기록함.

- 텍사스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에 있어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2번째 시장임.

- Progressive사는 동 보험을 보다 넓은 소비자 집단에게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운지 결정하기 위해 수백의 계약자들로부터의 데이터를 연구 중에 있음.

2. General Motors의 "OnStar 시스템"

□ 안전·보호 장치인 OnStar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되어진 휴대전화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 GPS 기술과 무선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운전자는 실시간 방향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음.

o 에어백에 이상이 없는지 자동 인지하고 도난차량 추적, 응급서비스, 원격 도어록, 원거리 진단 등을 포함한 부가 서비스들도 제공되고 있음

o OnStar 시스템은 이미 GM의 54개 차량 중 34개에 장착되어 있으며 Progressive사에 의하면 동 시스템이 이용실적에 근거한 자동차보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밝힘.

o 첫 번째 시스템을 1997년형 캐딜락에 적용한 OnStar는 현재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00년 말 1백만 GM 자동차와 트럭 중 80만 이상의 차량에 장착되었

으며 2003년 말에는 거의 4백만 차량에서 이용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됨.

2. Hartford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 "DriveCam"

□ 미국의 영업용자동차보험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는 Hartford는 영업용 자동차에 DriveCam이라 불리우는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o 동 시스템을 적용시켜 실험해 본 결과, 운전자들의 양호해진 운전 습관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발생률과 연료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증명됨.

o DriveCam은 1회용 카메라 사이즈로 차량의 백미러 뒤에 장착되며 예사롭지 않은 차량의 움직임이나 충돌에 의해 반응함.

- 반응시에는 카메라의 적색 등이 점등되며 시스템의 디지털 메모리 속에 기록되어 저장됨.

- 동 시스템을 TV, 캠코더나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시켜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설치에 드는 비용은 차량당 795 달러로 유지보수는 필요없음.

□ Hartford와 같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다루는 보험회사들은 동 시스템의 적용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o 영업용자동차보험의 합산손해율이 1995년 108.1%에서 2000년에 118.8%로 뛰어 오른 것과, 수많은 클레임사고, 의료비용의 증가와 소송의 증가 등으로 보험사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임.

o 또한 차량의 움직임에 관한 DriveCam의 기록은 사고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어 보험회사의 손실 비용을 경감시킬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동 프로그램이 아직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많은 영업용 차량보험회사는 경우에 따라 DriveCam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고 있음.

<국내 도입 및 활용 가능성>

□ 국내 GPS시장의 성장을 살펴보면, GPS 수신기 조립기술이 도입된 1996년 이후 이동통신과 항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매년 4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o 2000년 5월 현재 GPS와 전자지도가 탑재된 차량항법장치를 부착한 승용차가 만 여 대에 이르고 있으며 위치추적시스템은 주로 육상·해상 운송업계에서 활발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차량항법시스템, 차량관제/위치추적시스템, 시각동기 시스템 등이 국내에서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2000년 5월 미 국방성의 민간분야 GPS 이용제한 해제에 따라 이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중대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GPS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감안할때,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동 시스템의 활용을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평가됨.

(지재원 연구원)

5. 시장집중화에 따른 One-Stop 금융서비스의 실현

> 인터넷의 폭 넓은 이용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명한 금융소비자들의 증가로 기업들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및 정보를 위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 시장 집중화에 따른 원스톱 금융숍의 보편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임.

□ 시장 집중화가 진행됨에 따라 테크놀러지는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금융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온라인 및 사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일을 가능케 해주고 있음.

- o 금융기관은 집중되는 금융 서비스 시장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시장 집중에 대처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모든 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품을 배급하는 일을 맡는 것임.

□ Citigroup과 Charles Schwab의 사례

- o Citigroup은 자체적인 은행업, 중개업, 보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제조회사의 형태이며,
- o Charles Schwab은 보험회사와 제휴한 경우로 Schwab은 주식 거래 투자 상품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Great-West Life & Annuity Insurance와는 연금 및 생명보험 상품을, 그리고 E-Loan.com과는 저당권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휴 관계를 맺고 있음.

□ 현재 미국 보험업자의 31%가 온라인으로 보험 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해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마케팅 계약의 46%가 은행을 대상으로

체결되고 있음.

o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저축 허가(thrift charter)를 취득한 후에 은행을 개점하고 은행들은 보험 대리점을 매입하는 길을 모색해 온 반면 중개업자들은 소규모 은행을 매입하고 있음.

□ Merrill Lynch의 사례

o 뉴저지와 유타 주에서 각각 하나씩의 소규모 은행을 매입하여 이 은행들을 'Merrill Lynch Bank USA'와 'Merrill Lynch Bank and Trust'로 개명하였으며 두 은행은 모두 Merrill Lynch 고객들에게 단기 금융시장 계정을 제공함.

□ Commerce Bancorp의 사례

o 뉴저지 주에 기반을 둔 자산 규모 80억 달러의 Commerce Bancorp는 개발자와 배급자로서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며 고객들에게 은행업, 보험, 투자 등의 상품을 온라인과 지점을 통해 동시에 제공함.

o 또한 Highmark Life & Casualty Group과 제휴하여 인터넷을 통해 단체보험 및 장기간병 보험 상품을 마케팅하고 있음.

- 공동 상품은 장기 간병 및 단체 보험에 관한 정보와 시세, 온라인 구입 거래 방식을 원하는 Highmark와 Commerce 양측의 고객과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 청구 역시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15% 정도가 저렴함.

□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의 사례

o 뉴욕에 기반을 둔 AIG(자산 규모 2,680억 달러)는 오로지 보험에 주력

하며 약간의 은행업을 병행하고 자사의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주로 개발자로서 시장 집중화에 대처하고 있음.

o AIG의 핵심 사이트 : 자동차, 주택, 생명보험과 일부 은행상품을 포함한 소비자 및 소기업 상품에 주력하는 사이트인 AIGdirect.com, 비즈니스 전문가를 위한 위험관리 사이트인 AIGonline, 중개인과 대리인을 위한 accessAIG.com, 일반 정보를 위한 AIGcorporate.com 등이 있음.

o 회사의 주력 보험상품 외에도 소비자들은 AIG가 저축 허가를 취득한 후에 개점한 은행인 AIGBank로부터 AIGdirect에 대한 CD와 단기 금융시장 계정을 구입할 수 있음.

□ 금융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통합 정리된 계정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계정 정보에 접근하기를 희망할 것이며 대면 교류보다 셀프서비스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웹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과 인터넷 기기들이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함.

o 개인의 모든 재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일체형" 스마트카드, 상품과 서비스의 교차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경영 기술 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o Commerce Bancorp의 Online 사이트는 이미 은행 업무 처리, 대출 신청 및 저당 지불금 계산, 온라인 매매, 보험 가격 견적 등 금융 서비스를 총 망라하고 있음.

□ 시장 집중화는 단지 판매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고객의 관점에 관한 문제로 시장 집중화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바로 고객 유지력이 확보된다는 사실임.

o 제공해야 할 상품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인프라가 더 통합되어야 함.

- 고객은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대화형 음성 응답), 인터넷, 이메일, 호출 센터, 우편 등과 같은 복수 채널에서 상품이 하나로 통합될 것을 기대하는 바, 더 많은 하부조직의 통합이 요구되고 있음.

□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과 TowerGroup의 시장집중화에 관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미래는 IT 투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테크놀로지 외에도 핵심적인 제휴 및 협력 관계가 승리자와 낙오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지재원 연구원)

6. AIG의 아메리칸 제너럴 인수 후 미국 보험업계의 향방

AIG의 American General 인수 확정 후 미국 생명보험권내의 M&A 논의는 보험업계의 부정적인 단기적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인수에 따른 비용상의 문제가 수익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새로이 대두되고 있음.

□ AIG가 American General을 230억불에 인수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매수 대상 회사로 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과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s, Lincoln National이 언급되고 있음.

o 지난 3월 영국 푸르덴셜 PLC와 American General의 합병계획이 발표되었으나 AIG는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감안한 수준으로 인수를 제의함.

- AIG는 American General 주주에게 1주당 46달러로 하여 AIG 보통주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M&A 거래규모는 230억 달러에 달함.
- 푸르덴셜 PLC는 아메리칸 제너럴로부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6억 달러를 받음.

o Hartford, John Hancock, Lincoln 3사가 다음 매수대상 목표로 거론되는 반면, 이들 기업의 CEO는 모두 젊은 층으로 한결같이 쉽게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들이 기업을 매도하기 꺼려함에 따라 M&A와 관련된 논의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향후 매수 속도는 떨어지나 미국의 은행 및 유럽의 금융서비스 거대기업들의 매수를 둘러싼 경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매수 가격의 프리미엄은 올라갈 것으로 보임.

- 동 3사는 시가 총액이 90억 160억 달러에 달해 회사규모 면에서도 적정하여 잠재 매수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금년은 미국의 생명보험에 있어 곤란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보험회사의 매수는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o 상속세(Estate-tax) 개혁은 세금 혜택이 있는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시장에서의 수익과 관련성이 높은 보험상품은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임.

o 그러나 많은 기업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7년 이후로 생명보험에 관련된 거래는 1,117억 달러에 달함.

o 잠재 인수자들로는 미국의 Citigroup과 Wells Fargo, FleetBoston Financial과 독일의 Allianz, 프랑스의 AXA, 네덜란드의 Aegon 및 ING 그룹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퇴직 자금을 준비하는 미국 베이비 붐 세대들에게 보다 많이 접근하고 싶어함.

□ 또한 American General과의 합병계약에서 AIG에게 계약파기 위약금으로 6억 달러를 받아가며 합병을 무효화한 영국의 푸르덴셜 PLC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o American General 인수를 통해 금융산업현대화법(GBL) 이후 미국 금융산업 내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했던 유럽권 푸르덴셜 PLC의 미국내 연금분야 중심의 대형 보험사 인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Jefferson-Pilot사로 목표를 변경했다는 소문과 Lincoln National의 유력한 매수자라는 견해가 상존하는 가운데 푸르덴셜의 대변인은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변액보험 시장점유율에서** 3**위**, **생명보험 판매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는** Lincoln**사의 대표는 매수희망 회사 중 가장 우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함**.

□ **한편 매수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수많은 기업들이** M&A**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해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인수에 따른 비용상의 문제가 수익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새로이 대두되고 있음**.

- o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경영권 획득이 이로울 것으로 보이는** Jefferson-Pilot**은** "**인수할 만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 o Lincoln**사는 현재와 같은 연** 12%**의 수익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회사의 비용 구조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높다는 것이 불리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지재원 연구원)

7. 전통적 오프라인 보험사의 e-business 전략

닷컴기업과 온라인 보험판매가 기대했던 성과를 실현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보험사의 인터넷관련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보험회사의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내부 및 판매채널간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고객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보험회사의 이비지니스 전략의 성과와 새로운 방향모색을 소개함.

□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닷컴기업이 투자자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온라인 보험판매는 전통적인 판매채널을 압도할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현재 닷컴기업은 수익성의 결여로 고통받고, 온라인 보험판매의 급성장은 현실화되고 있지 못함.

□ 이에 반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보험사들의 경우 인터넷 역량에 대한 실용적인 투자를 꾸준히 진행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의 사업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음.

- o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보험사들의 이비지니스(e-business)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수백억 달러의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청약, 클레임(claims)처리, 계좌정보 관리 등 매우 느린 속도의 보험회사의 업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험산업의 발전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객들 또한 보험상품과 클레임을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 관리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몇몇 전통적인 보험사들이 인터넷관련 투자를 통해 달성한 온라인 고객서비스 단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o **저축성보험계좌의 관리** : **미네소타 라이프**(Minnesota Life Insurance Co.)**의 경우 변액유니버셜보험, 퇴직보험플랜 등에서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펀드사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자산배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음.**

o **클레임**(claims) **신청** : AIG **그룹 소속의** AIG **클레임서비스**(AIG Claim Services Inc.)**는 소기업의 고용주가 근재보험이나 손해보험 클레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클레임 상태의 확인 등** : **건강보험사인** Blue Cross & Blue Shield**는 가입자가 클레임 청구범위 확인, 자기부담금과 현금지불액 확인, 병원 입원 및 외래 허용 범위나 적격성 확인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함.**

o **보험사와 판매채널간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 CNA Corp.**의 경우, 브로커와 에이전트**(agent)**가 가격견적, 업무처리, 상품개발자와의 정기 채팅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까지 클레임신청, 갱신, 배서 등으로 처리업무를 확대할 예정임.**

□ **은행, 증권, 보험** 3**대 금융업종 중 고객들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유인이 가장 적은 것이 보험이며, 이것이 보험산업의 이비지니스 전략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인이 됨.**

o **첫째,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품구매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한 금융수단인 경우가 많고, 셋째, 보장상품의 특성상 해당상품 구입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품거래에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 보험사들의 기술투자는 내부 업무프로세스**

의 개선, 판매채널 파트너들과의 업무 효율화, 웹사이트를 통한 교육의 강화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신 또는 특징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올스테이트사(Allstate Insurance Group)는 에이전트(agent) 채널을 전속에서 독립으로 전환하였고, 이와 함께 웹사이트 및 인터넷기술을 개선하는 대형투자를 실행하였음.

- o 이는 전체 현장판매 조직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수익흐름의 90% 이상을 에이전트로부터 실현하고 있음.
- o 지난 1월 전문온라인통계기관(eMarketer)으로부터 보험분야 최고의 웹사이트로 평가받았으며, 7월의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 고객중심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보험증권과 자기부담금 평가, 클레임상태 확인, 자동차보험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고객과 에이전트의 관계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임.
- o 올스테이트사의 전략적 전환의 성과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성공여부는 5년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지만, 주가의 측면에서는 이미 선도적 지위임을 확인받았고, 많은 보험사의 모범사례가 되었음.

□ 프로그레시브사(Progressive Corp.)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보험료 지불 시스템 등 새로운 온라인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음.

- o 올해 2월 무선 개인휴대통신을 이용한 보험료 지불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웹사이트 "www.progressive.com"은 개인휴대통신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최초의 자동차보험 웹사이트이며, 보험료 지불을 위해 사용자는 웹이용이 가능한 핸드폰을 이용해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함.

o 이외에도 동사는 1998년에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계약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에이전트 전용 웹사이트(www.foragentonly.com)를 통해 에이전트들이 고객의 계약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관리하며 자료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작년에는 모터사이클, 보트 등에 대한 실시간 보험판매가 가능한 최초의 보험회사가 되었음.

□ 현재의 고객-브로커-보험사 모델을 파괴하지 않고 이 모델을 채택한 보험사에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닷컴기업들이 있는데, 이폴리시닷컴(ePolicy.com)이나 인슈어하이테크(InsureHiTech)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음.

o 이폴리시닷컴(ePolcy.com)의 목표는 손보사들이 소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객규모가 적어 브로커들이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이 시장에 브로커들이 온라인을 통해 요율결정, 견적, 증권발행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

- 이를 통해 60일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브로커판매에 비해 극히 짧은 시간인 1시간 정도에 판매절차가 완료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사업비율도 32 33%에서 21 23%로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짐.

o 인슈어하이테크(InsureHiTech)사를 통해 St.Paul사는 XML 언어를 사용한 웹기반 청약프로세스를 선보였으며, 동 사는 AIG, 애틀랜틱뮤추얼(Atlantic Mutual), 첩(Chubb)사, 켐펠(Kemper), 로얄 앤 선얼라이언스(Royal & SunAlliance)사 등과 통합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는 온라인 청약에서 자동적인 요율 결정, 언더라이팅까지 포괄하며, 이 시스템은 수분내에 인슈어하이테크(InsureHiTech)에 견적결과를 보내주고, 여러 보험회사들이 단일한 온라인 청약시스템으로 견적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청약, 견적, 계약변경, 클레임보고 등에 대한 통합된 웹기반 표준은 저비용과 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함.

□ 은행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판매채널과 고객을 위한 이비지니스 기술투자가 지연된 보험사는 향후 몇 년 내로 곤란에 처하고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o 미국 보험산업의 경우 상호회사가 많으므로 이러한 추세가 타 금융산업에 비해 늦게 나타나지만, 일반화된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음.

□ 단순한 필수품형 보험상품의 온라인 판매확대 등 가시적 성과도 실현되겠지만, 무엇보다 보험산업의 이비지니스화를 추동하는 힘은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셀프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예로 계약갱신을 들 수 있음.

o 온라인에서의 셀프서비스는 콜센터나 대리점을 통한 고객관리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임.

□ 고비용 저효율 판매채널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한 당면과제인 국내보험사에 있어서도 현재의 고객-판매채널(모집인, 대리점)-보험회사의 모델을 유지하면서 업무프로세스의 혁신과 판매채널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성공적인 이비지니스 모델의 연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판단됨.

o 최근 코닝사의 보고서는 미국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에이전트 채널과의 갈등에 대한 지나친 고려가 에이전트와 양립가능하고 판매제고에도 유익한 소비자중심적 웹사이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김혜성 책임연구원)

8. OECD 동향 : 제 67차 OECD 보험회의 개요

- **OECD 보험회의는 보험위원회 산하에 있는 지급여력 및 사적연금 작업반회의와 보험 본회의로 구성되어 있음.**
- **지급여력 작업반회의에서는 국제적 보험회계 기준에 대한 IASC의 발표 및 질의와 재보험사업자 정보교환 절차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사적연금 작업반회의에서는 독일, 노르웨이, 일본 및 영국이 최근 사적연금 개혁 및 변화를 발표하였고, 연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초안 및 OECD 사무국에서 마련한 새로운 연기금 분류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연기금 감독 방안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이 있었음.**
- **보험본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최근동향,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계약자 보호기금 및 E-Finance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음.**

□ **회의일시 및 참석자**

o 제 67차 OECD 보험회의가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대표로는 OECD 한국 대표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각 1명씩 참가하였음.

<회의 주요내용>

□ **국제적 보험회계 기준**

o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이연ㆍ대응방식(deferral and matching) 및 자산ㆍ부채방식(asset and liability) 중

공정가격으로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는 자산·부채방식을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정하자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번 회의에서와 동일하게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음.

- 다수의 회원국(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자산·부채방식은 계약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부채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재보험사업자 정보 교환

o 원보험자의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자의 지급여력, 재무상태 등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원국간의 재보험사업자의 정보교환 절차에 대하여 토의가 이루어짐.

- 통보주체 : 회원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 통보절차의 구속성 여부 : 원칙적으로 비구속적이나 구속성 여부도 향후 검토
- 비용부담 : 보험위원회 사무국은 회원국이 균등부담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향후 토의 할 예정임.

□ 사적연금에 관한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

o 독일은 국민연금 각출금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개인구좌의 점진적 도입을 위한 연금개혁(2001년 5월 10일 국회 통과)을 단행하였는데, 현행 국민연금 갹출금 19.1%를 22%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급부금을 순소득의 70%에서 67%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고, 개인구좌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신 정부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어 가입자를 증대시킬 예정임.

o 노르웨이는 확정갹출형 자발적 직역연금을 2001년 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고용주의 갹출로만 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음.

o 일본은 미국의 401(k)와 유사한 확정갹출형 직역연금을 2001년 6월 19일 시행하였으며, 영국은 다양한 종류의 연기금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miss-selling)를 해결하고, 연금가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비교적 저소득층(1만 2만 파운드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연금(확정갹출형)을 2001년 4월 6일 도입하였음.

□ 연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연기금 분류

o 보험위원회 사무국이 마련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일부 회원국이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7월 초까지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함.

- 연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시 의무, 운영자의 책임 및 자격요건, 보상체계 등 15개 조항에 관한 권고 사항.

o 사무국이 마련한 새로운 연금분류 접근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토의함.

- 사무국은 3층 보장 접근법(Pillar 접근법을 말하는데, 계층을 기준으로 하여 회원국의 연금제도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1층은 전국민 대상, 2층은 피고용인 대상, 3층은 개인대상임)대신 公的 또는 私的, 自發的 또는 强制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안을 바탕으로 자국의 연금 형태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일부국가에서는 동 형태의 연금 분류는 개별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곤란(예: 독일의 경우 사적연금은 강제적 형태가 없고, 스위스의 경우 완전강제와 부분강제 형태가 존재)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사무국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되 각국의 특수 상황은 각주로 설명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연금감독

o PPR(Prudent Person Rule: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중시하는 투자 규제 방안)과 수량접근방법에 대한 감독자의 선택기준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원국은 PPR이 수량접근법보다 투자 성과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독일 대표는 전문적 투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소규모 회사의 예를 들어 독일은 현행 수량접근방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이런 경우에도 PPR이 수량접근법보다 우월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음.

o 영국의 연기금 감독청인 OPRA(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는 현장감독(on-site supervision)과 off-site 감독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이탈리아 대표는 현장 감독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off-site 감독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의하였고, 멕시코는 연기금 감독에서 현장감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off-site 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보험관련 회원국의 최근 동향(TOUR D'HORIZON)

o 유전자 테스트(Gentic Test)에 관한 최근 동향

- 종전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는 유전자 테스트 결과를 언더라이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영국의 경우는 ￡300,000 이상의 보험계약에 한해서만 '유전자 보험위원회'가 유전자 테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o 보험회사 및 연기금의 환경관련 사회적 책임

- 영국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보험회사의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한 요구는 강제적이기보다는 보고 의무에 국한되어 있고, 독일은 2002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연금에서는 SRI에 대한 공시규정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힘.

o 소비자정보 공시(Consumer Information)

- 네덜란드의 경우 금융겸업화와 복합금융상품의 출현을 계기로 소비자가 금융상품 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2002년부터 상품내용에 대한 공시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o 보험사기(Insurance Fraud)

- 미국의 보험요율통계전문기관(ISO)은 베네주엘라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분석결과를 소개하였음.
- 특히 e-commerce의 등장으로 보험사기 분야가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는 만큼 감독 당국도 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금융 겸업화 및 감독기구 통합화 추이

o 다수 회원국들에서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되고 있는 추세임을 설명.

- 아일랜드와 독일 : 소비자의 겸업화에 대한 요구 및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발족할 예정임.
-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은행과 보험의 상이한 리스크로 인해 단일 감독기구를 만들 계획이 없음을 표명하였고, 이탈리아 역시 은행과 보험의 시장환경 및 업무 특성이 상이함을 이유로 각 금융권별로 분리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호주 :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운영 경험상 감독구조의 형태를 정하는데 비용측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표명함.
- 이와 같이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각국의 금융산업 겸업화 추세에 따라 통합감독체계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사실상 금융업종별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 측정 및 이에 대한 감독운용이 사실상 쉽지 않음.

□ 계약자 보호기금

o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지난 회의까지의 내용 재정리 및 기타 각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

- 스위스는 계약자보호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험회사간 불공정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미국은 보험종목별로 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적립 방법 또한 사후적으로 적립하는 방법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정책경험을 소개함.
- 한국의 경우 계약자보호기금의 상세 내용 및 추가적인 변동사항에 대해 서면(Room Document)으로 제출하였음.

□ E - Finance

o 회원국들은 계약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거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대면 접촉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보험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설명하였음.

o 하지만 인터넷 뱅킹의 증가 및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향후 보험부문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증대될 것이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시사점

- o 보험에 관한 국제적 회계처리원칙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므로 동 회계처리원칙은 일반 회계기준과 차별화되어야 함.
- o 출수재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상황에서 외국 재보험사에 대한 재무 정보는 국내 원보험자가 건전한 재보험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재보험 정보교환에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o 공적연금 분야에서 개인구좌의 도입 및 확정갹출형 직역연금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o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투자(SRI)가 회원국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감독당국 및 보험사업자도 이에 대한 감독 규정 및 투자 성과 등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것임.
- o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 이미 감독기관이 통합된 우리의 경우 통합 효율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망됨.
- o 계약자 보호기금에 대한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계약자 보호기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망됨.

(정세창 부연구위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0			2001
		2/ 4	3/ 4	4/ 4	1/ 4
국내총생산(GDP)		9.7	9.2	4.6	3.7
경상수지		2,654.4	3,453.9	3,347.9	3,156.5
수 출		43,411	44,396	45,304	40,325
수 입		39,796	40,393	41,445	38,033
실업률		3.8	3.6	3.7	4.8
금리	국고채(3년)	8.31	8.07	6.70	6.31
	회사채(3년)	9.37	9.04	8.13	7.69
소비자물가지수		120.0	122.3	123.2	125.2
환율	원/ 달러	1,114.90	1.115.00	1,265.00	1,329.00
	엔/ 달러	106.23	108.02	114.41	125.51
종합주가지수		821.22	613.22	504.62	523.22
외환보유고		96,198	94,444	90,372	92,535

주 :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표 2>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수신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구 분	2000			2001
	2/ 4	3/ 4	4/ 4	1/ 4
은 행 계 정	258,675	165,814	208,175	56,759
실세요구불	56,739	-17,930	45,347	-27,045
저축성예금	226,769	137,129	113,317	57,580
금 전 신 탁	-138,874	-96,441	-105,511	35,062
추가금전	16,528	17,876	5,571	37,519
단위금전	-94,671	-25,485	-12,931	-3,841
신종적립	-13,676	-24,607	-34,571	-24,070
투 신 사	-278,322	100,467	-103,258	178,882
단기채권	-103,297	-14,317	-2,931	23,010
장기채권	-135,570	101,051	33,632	41,614
M M F	-37,388	87,236	-64,257	165,173
주 식 형[1]	-2,067	-48,047	-69,702	-50,914
종 금 사	-34,506	5,365	-36,190	-5,811
증권사고객예탁금	-12,000	-20,765	-14,794	15,869
주식형뮤추얼펀드	-14,596	-15,498	-13,208	-1,188

주 : 혼합투자신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수입보험료증가율、보험료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1999		FY2000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보험	보험료	26,305	97,808	32,346	27,494	27,717	22,154	109,711
	증가율	6.2	-4.8	23.0	-15.0	0.8	-20.1	12.2
	비 중	23.4	20.9	27.4	21.3	17.0	19.6	21.0
사망보험	보험료	27,610	100,461	28,809	29,936	33,271	35,284	127,246
	증가율	6.3	26.1	4.3	3.9	11.0	6.2	26.7
	비 중	24.6	21.5	24.4	23.2	20.4	31.3	24.3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32,495	117,813	33,598	36,473	58,470	37,872	166,413
	증가율	8.6	-21.8	3.4	8.6	60.3	-35.2	41.3
	비 중	28.9	25.2	28.5	28.2	35.9	33.6	31.8
개인보험계	보험료	86,410	316,082	94,752	93,904	119,404	95,311	403,371
	증가율	7.1	-5.1	9.7	-0.9	27.2	-20.2	27.6
	비 중	77.0	67.6	80.2	72.6	78.3	84.4	77.1
단체보험계	보험료	25,869	151,472	23,320	35,382	43,498	17,556	119,755
	증가율	-68.5	13.1	-9.9	51.7	22.9	-59.6	-20.9
	비 중	23.0	32.4	19.8	27.4	26.7	15.6	22.9
전 체	보험료	112,279	467,554	118,072	129,286	162,902	112,867	523,126
	증가율	-31.0	0.1	5.2	9.5	26.0	-30.7	11.9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비중은 전체수입보험료 중 각 보험종목의 비중이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고, 연간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FY1999년부터 단체보험계는 특별계정을 포함한 수치임.
3) FY2000 1/ 4분기에는 동아실적을 제외하였고, 2/ 4분기에는 국민, 한덕, 태평양 실적을 제외하였으며, FY2000 연간은 현대, 삼신 3/ 4분기말 실적 포함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19,733	75,019	16,267	14,892	22,269	19,340	72,767
	증가율	15.2	-49.6	-17.6	-8.5	49.5	-13.2	-3.0
	지급률	75.0	76.9	50.3	54.2	80.3	87.2	66.3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8,209	30,026	8,441	8,329	9,754	10,168	36,692
	증가율	9.3	-0.2	2.8	-1.3	17.1	4.2	22.2
	지급률	29.7	29.9	29.3	27.8	29.4	28.8	28.8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30,377	110,826	25,621	23,954	37,669	32,546	119,789
	증가율	6.2	24.6	-15.7	-6.5	57.3	-13.6	8.1
	지급률	93.5	94.1	76.3	65.7	64.4	85.9	72.0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58,319	215,870	50,329	47,174	69,692	62,054	229,248
	증가율	9.5	-19.4	-13.7	-6.3	47.7	-11.0	6.2
	지급률	67.5	68.3	53.1	50.2	58.4	65.1	56.8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31,160	167,179	54,611	34,497	57,442	28,508	175,059
	증가율	-54.9	-13.7	75.3	-36.8	66.5	-50.4	4.7
	지급률	120.5	110.4	234.2	97.5	132.1	162.4	146.2
전 체	지급보험금	89,479	383,049	104,940	81,671	127,134	90,562	404,307
	증가율	-26.9	-17.0	17.3	-22.2	55.7	-28.8	5.5
	지급률	79.7	81.9	88.9	63.2	78.0	80.2	77.3

주 :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사업비	3,135	11,734	2,358	3,131	3,179	3,090	11,758
	증가율	7.4	-21.6	-24.8	32.8	1.5	-2.8	0.2
	사업비율	11.9	12.0	7.3	11.4	11.5	13.9	10.7
사망보험	사업비	9,738	33,371	7,486	9,116	11,111	11,244	38,957
	증가율	12.6	10.5	-23.1	21.8	21.9	1.2	16.7
	사업비율	35.3	33.2	26.0	30.5	33.4	31.9	30.6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4,132	13,140	3,141	3,981	6,138	4,938	18,199
	증가율	23.8	-24.4	-24.0	26.7	54.2	-19.6	38.5
	사업비율	12.7	11.2	9.3	10.9	10.5	13.0	10.9
개인보험계	사업비	17,005	58,245	12,986	16,228	20,428	19,272	68,914
	증가율	14.1	-6.9	-23.6	25.0	25.9	-5.7	18.3
	사업비율	19.7	18.4	13.7	17.3	17.1	20.2	17.1
단체보험계	사업비	1,165	4,124	791	753	993	943	3,480
	증가율	7.4	18.4	-32.1	-4.8	31.9	-5.0	-15.6
	사업비율	4.5	2.7	3.4	2.1	2.3	5.4	2.9
전 체	사업비	18,170	62,369	13,777	16,981	21,421	20,215	72,394
	증가율	13.6	-5.5	-24.2	23.3	26.1	-5.6	16.1
	사업비율	16.2	13.3	11.7	13.1	13.1	17.9	13.8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화 재	보험료	581	2,646	662	662	795	636	2,755
	성장률	-23.4	-3.3	13.9	-	20.1	-20.0	4.1
	비 중	1.6	1.8	1.7	1.6	1.7	1.5	1.6
해 상	보험료	1,087	4,571	1,081	1,065	1,065	1,133	4,344
	성장률	-1.5	22.3	-0.6	-1.5	-	6.4	-5.0
	비 중	2.9	3.1	2.8	2.6	2.3	2.7	2.6
자동차	보험료	14,065	55,368	14,889	16,647	17,171	16,276	64,983
	성장률	-5.4	4.9	5.9	11.8	3.1	-5.2	17.4
	비 중	38.0	37.4	38.0	40.3	36.9	39.2	38.5
보 증	보험료	1,535	5,738	1,611	1,324	1,551	1,535	6,021
	성장률	1.3	-6.1	5.0	-17.8	17.1	-1.0	4.9
	비 중	4.1	3.9	4.1	3.2	3.3	3.7	3.6
특 종	보험료	2,145	9,179	2,864	2,801	2,688	2,349	10,702
	성장률	-9.0	1.4	33.5	-2.2	-4.0	-12.6	16.6
	비 중	5.8	6.2	7.3	6.8	5.8	5.7	6.3
해외원 보 험	보험료	163	673	152	177	52	60	441
	성장률	8.7	-21.7	-6.7	16.4	-70.6	15.4	-34.5
	비 중	0.4	0.5	0.4	0.4	0.1	0.1	0.3
장 기	보험료	15,559	60,307	16,027	16,676	19,447	17,242	69,392
	성장률	2.7	-0.2	3.0	4.0	16.6	-11.3	15.1
	비 중	42.0	40.7	40.9	40.3	41.8	41.5	41.2
개 인 연 금	보험료	1,488	6,041	1,492	1,515	1,544	1,606	6,157
	성장률	-0.7	-11.1	0.3	1.5	1.9	4.0	1.9
	비 중	4.0	4.1	3.8	3.7	3.3	3.9	3.7
퇴 직 보 험	보험료	429	3,625	416	485	2,248	674	3,823
	성장률	-81.0	-	-3.0	16.6	363.5	-70.0	5.5
	비 중	1.2	2.4	1.1	1.2	4.8	1.6	2.3
계	보험료	37,052	148,148	39,194	41,352	46,561	41,511	168,617
	성장률	-0.9	3.9	5.8	5.5	12.6	-10.8	13.8

주 : 성장률은 전분기 및 전년대비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별.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1999	FY2000			
		4/ 4	1/ 4	2/ 4	3/ 4	4/ 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1.9	60.0	70.5	74.1	67.1
	사업비율	56.7	57.1	58.5	54.8	57.2
	합산비율	118.6	117.1	129.0	128.9	124.3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3.8	52.0	44.4	47.8	46.5
	사업비율	40.6	35.1	38.1	37.5	35.5
	합산비율	84.4	87.1	82.5	85.3	82.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3.0	69.5	71.1	74.3	73.2
	사업비율	34.0	31.9	32.1	31.7	32.2
	합산비율	107.0	101.4	103.2	106.0	105.4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56.0	-78.3	-9.1	65.0	73.9
	사업비율	13.3	14.5	15.3	13.0	13.8
	합산비율	469.3	-63.8	6.2	78.0	87.6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6.9	51.4	52.4	55.3	56.8
	사업비율	24.2	18.2	21.0	21.5	21.9
	합산비율	81.1	69.6	73.4	76.8	78.7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63.6	55.1	57.3	80.4	78.9
	사업비율	43.3	49.4	41.4	43.5	37.8
	합산비율	106.9	104.5	98.7	123.9	116.7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92.6	91.2	91.2	91.3	90.9
	사업비율	20.6	20.1	20.2	19.3	19.5
	합산비율	113.2	111.3	111.4	110.6	110.4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3.6	116.1	118.4	119.0	118.6
	사업비율	14.7	11.7	11.8	11.9	11.7
	합산비율	128.3	127.8	130.2	130.9	130.3
전 체	경과손해율	109.1	71.9	76.9	82.3	82.0
	사업비율	26.4	24.8	25.2	24.6	24.9
	합산비율	135.5	96.7	102.1	106.9	106.9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별.

新着圖書案內

보험연구소 보험자료실에서 2001년 4월 2001년 6월 중 입수한 보험관련 도서목록입니다.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1999) 농가경제통계	통계청	통계청	2000
(2000년 춘계심포지움) 전자금융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학회	2000
(2000년도)하반기 경제전망	정한영	한국금융연구원	2000
(마이크로소프트)한글파워포인트 7.0	하주석	혜지원	2000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안정을 위한)노동부업무처리총서	백운결	한국산업훈련협회	2000
(핵심)정보기술총서 : 데이터베이스·정보실무	삼성 SDS 기술사회	한울아카데미	1999
(핵심)정보기술총서 : C/S, CALS/EC, 인트라넷 소프트웨어 공학	삼성 SDS 기술사회	한울아카데미	1999
2000 세계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0
2000 한국인터넷 백서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2000
2000 한국자동차 산업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0
가상사회와 전자상거래 : 성공적인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제안	하겔, 존3세	세종서적	1999
건설교통통계연보 1999 : 건설부문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박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경제통계연보(2000)	한국은행	한국은행	2000
고용보험통계연보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00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9
共濟事業の概況	日本損害保險協會	日本損害保險協會	1999
교수명색인 : 2000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交通安全白書(平成11年版)	總務府	總務府	1999
구분계리SYSTEM 개발과 활용			1999
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00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 제11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규제완화의 신조류와 생보사의 경영혁신	유건식	삼성금융연구소	1997
금융자산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김진영	삼성금융연구소	2000
금융재보험 : 독일논문모음집	Kalusche, Andreas		1999
기업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류건식	삼성금융연구소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조애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농림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차등보조제 도입방안 연구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농작물 보험 및 재해지원제도 연구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신착도서안내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연도
대한보증 1996	대한보증	대한보증	1999
도시가계연보 1999	통계청	통계청	2000
동북아 경제협력 : 금융협력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동북아 경제협력 : 투자협력	이성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 총괄편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동아시아 화인경제와 우리의 화인자본 활용방안	최수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디지털의 충격과 한국경제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2000
마켓타이밍戰略의 實用性 分析	이재돈	삼성경제연구소	2000
미국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0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2000
방카슈랑스 : 유럽의 경험과 국내 도입전략			2000
병원비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윤경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보험사의 Health Care Business	류성경	삼성금융연구소	2000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안철경	보험개발원	2000
보험상품 세제연구	홍원구	삼성금융연구소	2000
보험상품관리규정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00
보험수리학	류건식	보험개발원	2000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 구축과 효율적 활용방안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00
保險の情報開示 : 先進各國の實態と我が國への教訓	上田和勇	同文館	2000
부가보험료 자유화의 영향 및 손보사 대응방안 : 일반보험을 중심으로	류성경	삼성금융연구소	2000
북한 금융시장의 현황과 생보사 진출방안	김상의	삼성금융연구소	2000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2000
사회보장발달사 : 포스트 복지자본주의와 패러다임	원용찬	신아	1998
생명보험 세무편람 2000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2000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1998
生保産業의 構造 및 成果分析	류건식	삼성금융연구소	2000
선진국의 직무급 운영에 관한 연구	조명기	삼성금융연구소	2000
손해보험 요율산출 및 검증 방법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00
시ㆍ군 단위 묘지실태조사 모형개발	이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시스코라우터	홍진호	사이버출판사	1998
시스템통합의 핵심기술	복병학	대청	1999
신뢰성공제 용역관련 해외출장보	차일권	보험개발원	2000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신용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연구	전기석	삼성금융연구소	2000
실업가정의 생활변화와 대응방안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양·한방 협진실태와 정책방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엑셀2000 매크로와 VBA 제대로 활용하기	유호철	영진.COM	2000
연봉제 ·목표관리 업적평가제도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인사관리협회	1999
연차보고서 : 1999년도 〈제1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0
연차보고서 제14기 회계년도	신용관리기금	신용관리기금	1997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WTO사무국		2000
의료기관 신임제도 도입방안	윤경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과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인력관리	거피, 로브	21세기북스	1999
인터넷 비즈니스.COM	김진우	영진.COM	2000
자동차사고 손해에 관한 분석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00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 정책의 평가와 과제	유승민	비봉출판사	2000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 주식 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조성욱	한국개발연구원	2000
저출생체중아 발생현황 및 정책	한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전국 대학교수명부 : 2000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2000
정성적 소비자연구와 생보사의 활용방안	이병희	삼성금융연구소	2000
제4회 한국 지식경영학회 학술심포지움	한국지식경영학회		2000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주요국의 사적연금제도와 감독정책방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0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	장원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지적자본	에드빈슨, 레이프	세종서적	1998
最近 あなたの生命保險 : 保險會社も教えない	小野瑛子	日本實業出版社	2000
파란마을 푸른금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표준인삼경작방법			2000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이영훈	한국개발연구원	2000
한국금융연감 (1999/2000년판)	은행계	은행계	1999
한국기업의 지식경영 추진 현황	한국지식경영학회	매일경제신문	2000
한국의 공제조합 현황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

신착도서안내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한국의 손해보험 1997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한국의 손해보험 1999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
Accounging information system	Bonder, George H	Prentice Hall	1996
Annual Report	The Kyoei Life Insurance Co	The Kyoei Life Insurance Co	1997
Annual Report	The Kyoei Life Insurance Co	The Kyoei Life Insurance Co	1998
Annual Report	The Kyoei Life Insurance Co	The Kyoei Life Insurance Co	1999
Annual Report 1996			1997
Annual Report 1996/97	Association of British Ins	Association of British Ins	1997
Annual Report 1997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	1998
Annual Report 1997	Daehan Fire & Marine Ins	Daehan Fire & Marine Ins	1998
Annual Report 1997	Fujitsu Limited	Fujitsu Limited	1998
Annual Report 1997	Hyundai Marine & Fire Ins	Hyundai Marine & Fire Ins	1998
Annual Report 1997	The Nippon Fire & Marine Ins	The Nippon Fire & Marine Ins	1998
Annual Report 1997	Sumitomo Life Insurance Co	Sumitomo Life Insurance Co	1998
Annual Report 1997	Sekisui House	Sekisui House	1998
Annual Report 1997	The Dowa Fire and Marine Ins	The Dowa Fire and Marine Ins	1998
Annual Report 1997/98	Central Reassurance Corporation	Central Reassurance Corporation	1998
Annual Report 1998	Korean Reinsurance Company	Korean Reinsurance Company	1999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Annual Report 1998/ 1999	ICCB	ICCB	2000
Annual Report 1998- 1999	Association of British Ins	Association of British Ins	2000
Annual Report 1999	Mitsui Marine and Fire Ins	Mitsui Marine and Fire Ins	2000
Annual Report 1999	Hyundai Marine & Fire Ins	Hyundai Marine & Fire Ins	2000
Annual Report 98	KDIC	KDIC	1999
Cfm review : for part 2cfm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Gleim, Irvin N	Gleim Publications	1999
Change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Cummins, J. David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 Korea's perspective	Nam, Sang-yirl	KIEP	2000
Crime & Fraud : Prevention Bureau	Association of British Ins	Association of British Ins	1999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rgeement	Kim, Jong Bum	KIEP	2000
Die Kreditversicherung	Meyer, Bernd H	Fritz Knapp Verlag찹 Frankfurt	1997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Youngman, Ian	CRC	1999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Kim, Won-Ho	KIEP	2000
E-Business Technology Forecas	PricewaterhouseCoopers Tech		2000
Excellence and Innouation in	urance W Nationale-Nederlanden N.V	urance W Nationale-Nederlanden N.V	
Financial Services Beyond Frontiers	ING GROUP	ING GROUP	
Fire and Marin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Fire and Marine InsuranceRating Association	Fire and Marine InsuranceRating Association	
Flagship course in pension reform : week	World Bank Institute	World Bank Institute	2000
Flagship course in pensionreform : preliminary reading	World Bank Institute	World Bank Institute	2000
Insurance draft interim prudential sourcebook	Financial services authorit	Financial services authorit	2000
Insurance Facts, Figures and Trends 1999	ABI	ABI	1999
Insurance in Korea (1997년도)	Insurance Supervisory Board	Insurance Supervisory Board	1997

신착도서안내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Insurance Pocket Book 2000	Tillinghast-Towers Perrin	NTC Publications Ltd	1999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ABI	ABI	1999
International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v.1	Campbell, Dennis	Oceana Publications	1997
International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v.2	Campbell, Dennis	Oceana Publications	2000
Internet Insurance Distributi : Here we.com...ready or not!	Conning & Company	Conning & Company	2000
Issues in Korean trade 1999 :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Yang, Junsok	KIEP	2000
KEIC Annual Report 1994	KEIC	KEIC	1999
KIEP 1995 : 개원 5주년 기념	KIEP	KIEP	1999
Korea in Transition: Reforms	Korea Institute for Interna	Korea Institute for Interna	1998
Korea Non-Life Insurance	Korea Non-Life Insurance Assocation	Korea Non-Life Insurance Assocation	1997
Korea Non-Life Insurance 1998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1998
Korea Power Plant Service Co.	Korea Power Plant Service	Korea Power Plant Service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 Technology, Credit and a Bright Future	Korea Technology Credit Gua	Korea Technology Credit Gua	
Lafferty Group: High quality,in-depth,global information	Lafferty Group	Lafferty Group	
Life Distribution in the 21st Century-Insurance Industry views and Insights : "We've Got No Place to Go But Up"	Conning & Company	Conning & Company	1999
Life Insurance Business in Japan1998/1999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1999
Life Insurance Business In Korea 1996/97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1997
Life Insurance Business In Korea 1997/98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1998
Life Insurance Business In Korea 1998/99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1999
Life Insurance Business in Korea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1999
NongHyup(NACF) Insurance	National Agricultural Coope	National Agricultural Coope	1998
OLIS 2000 연수보고서	김혜성	보험개발원	2000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Original Pronouncements (1999)	FASB	John Wiley & Sons	1999
Paying For Auto Injuries	IRC	IRC	1999
Regulation and distribution of variable insurance products	Kirsch, Clifford E	Aspen Law & Bisiness	1999
Report and Accounts	TheTokio Marine and Fire Ins	TheTokio Marine and Fire Ins	1998
Report and Accounts	TheTokio Marine and Fire Ins	TheTokio Marine and Fire Ins	1997
Risk : Internet and E-comme Insurance and Reinsurance Legal Issues	Hammesfahr, Robert W	A Reactions Publication	2000
Risk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in business and industry	Koller, Glenn	CRC Press	1999
Selected readings in OECD forum : first meeting of the OECD forum on private pensions	World Bank Institute	World Bank Institute	2000
Sixty Five Years With Life Insurance Dr.Saburo Kawai	The Kyoei Life Insurance Co	The Kyoei Life Insurance Co	1999
The end of finance :the theory of capital market inflation, financial derivatives and pension fund capitalism	Toporowski, Jan	Routledge	2000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The London Insurance Market 1998	Carter, Robert L	ABI	2000
The Tax Treatment of Pensions	Booth, P	City University	2000
Tokio Marine 1997	TheTokio Marine and Fire Ins	TheTokio Marine and Fire Ins	1997
Uninsured Motorists	IRC	IRC	1998

신착도서관련 문의 : ☎(02) 368-4230, E-MAIL : cbyun@kidi.or.kr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 4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 2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 3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 3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 3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 3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 3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 3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 3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 5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 11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 1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 2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 2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 3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 3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 3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 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 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 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 3
99-3	국민연금 민영화보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 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 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 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 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 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 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 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 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 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 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 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 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랜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 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 12
2001-0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01. 1
2001-0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0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0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 3
2001-0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 3
2001-0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 4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 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 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 10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 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 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 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 9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 2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 3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 3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 8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 8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 10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 11.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회, 1999. 1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 3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 3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 6.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 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 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 심사(Underwriting)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 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본부, 2001. 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회, 2001. 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 3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연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 11

98-1 '99연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 11

99-1 200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 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 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 1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 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 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 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 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 5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 10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 11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 12.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 3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 3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 5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 2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 3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 3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 3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 10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영문발간문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ho Park, 1995. 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 4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 년) · 조사연구자료(5~10회/ 년) · 정책연구자료(3~5회/ 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 년) · 조사연구자료(5~10회/ 년) · 정책연구자료(3~5회/ 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간행물별 년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 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04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구독신청서와 회비납입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에게 송부하여 주시면 회비입금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Yes 24,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보험동향 2001년 여름호(통권 18號)

2001年 7月 2日 第1刷發行

發行人 박 성 욱
編輯人 이 순 재

發行處 保 險 開 發 院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35-4
登　　錄 1997. 7. 15. (바-2873)
代表電話 (02) 368-4000

印刷所 대 화 인 쇄
電　　話 (02) 2265-1330

定價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5, 368-4188)으로 하여 주십시오.